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3단계 7개년(2014~2020)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 10.



■ 연구총괄 || 고 성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책임연구 || 정 중 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Glasgow대학 문화정책 박사)

■ 공동연구 ||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김 슬 지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 과정)

서 문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높여 지역사회 공동체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생활예술 네트워크구축과 활성화, 그리고 문화공동체 육성,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2012년 문화부 시행 「지역전통문화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정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추진해 온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향후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성숙, 심화의 단계로 접어드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했던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많은 현장을 찾아가 여러 다양한 참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던 연구진들의 진심어린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3년 8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 선 희

<목 차>

1. 서론	7
2. 개념적 고찰: 생활예술의 이해.....	11
2.1. 생활예술 개념의 정의	
2.2. 생활예술 활동의 구분	
2.3. 생활예술 활동의 지향	
3. 역사적 고찰: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진화과정.....	21
3.1. 1단계 3개년 사업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3.2. 2단계 5개년 사업의 진화과정과 재구조화	
4. 평가Ⅰ: 문헌분석을 통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39
4.1. 내부 보고서 및 프로젝트 북 분석	
4.2. 외부 보고서 및 언론기사 분석	
4.3. 소결	
5. 평가Ⅱ: 인터뷰를 통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63
5.1.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성과와 한계	
5.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5.3. 소결	
6. 평가Ⅲ: 평가지표에 의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87
6.1. 평가지표 체계 및 성과지표 도출	
6.2. 평가지표 적용 결과	
6.3. 소결	
7. 결론 및 향후과제.....	113
참고문헌.....	121
부록.....	123

<표 목차>

<표 2-1>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대조적 특징.....	12
<표 2-2> 생활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화공동체적 관점.....	20
<표 3-1> 통계조사 및 백서발간 계획.....	23
<표 3-2>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3단계 계획.....	24
<표 3-3>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3단계 계획.....	24
<표 3-4> 문화통화 시스템의 기반조성 3단계 계획.....	26
<표 3-5> 성남문화재단 단계별 발전계획의 개요.....	30
<표 3-6> 2단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추진 전략 및 방안.....	32
<표 3-7> 『포지셔닝』 연구가 제안한 핵심 전략 및 사업.....	34
<표 3-8> 『성남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세계화 연구』의 제안 사업.....	36
<표 3-9> 2단계 5개년 계획 중 3대 사업의 추진 상황.....	37
<표 4-1> 『연계발전』(2008)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39
<표 4-2> 『2단계 5개년』(2009)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40
<표 4-3> 『포지셔닝』(2010)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41
<표 4-4>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목록.....	43
<표 4-5>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북 목록.....	47
<표 4-6> 성남 생활예술 정책에 대한 외부연구자들의 평가.....	52
<표 4-7> 연도별 성남 생활예술 사업 관련 기사 건수.....	55
<표 4-8>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관한 주요 기사 목록.....	57
<표 4-9> 문헌분석에서 도출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60
<표 5-1> 문헌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84
<표 5-2> ‘사랑방’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의 문제점 비교.....	85
<표 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부 사업평가별 체크리스트 비교.....	88
<표 6-2>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지표 체계(가안).....	89
<표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분류표.....	90
<표 6-4>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91
<표 6-5> 기획/계획 부문 평가결과.....	94
<표 6-6> 집행/관리 부문 평가결과.....	97
<표 6-7>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2단계 추진 현황.....	98
<표 6-8> 연도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관련 기사 건수.....	100
<표 6-9> 산출/결과 부문 평가결과.....	101

<표 6-10>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	102
<표 6-11>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참여 클럽수.....	102
<표 6-12> 사랑방클럽 축제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	103
<표 6-13>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5
<표 6-14>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 내용 요약.....	106
<표 6-15> 2013 성남과 1997년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 설문결과 비교.....	108
<표 6-16>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 결과.....	110

<그림 목차>

<그림 1-1> 생활예술 공동체의 세 유형.....	15
<그림 1-2> 생활예술 공동체의 유형별 주체와 목적.....	16
<그림 1-3> 생활예술 공동체 주요 활동의 세 층위.....	18
<그림 3-1>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22
<그림 3-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통합사업 모델.....	27
<그림 3-3> 문화공동체 시스템.....	31
<그림 3-4> 동네클럽 네트워크 시스템.....	31
<그림 3-5> 수정된 5대 정책 개념도.....	31
<그림 3-6> 새로운 정책 관계도.....	31
<그림 3-7>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재통합 개념도.....	33
<그림 3-8>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재통합 개념도.....	35
<그림 4-1>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	42
<그림 4-2> 2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	50
<그림 5-1> ‘사랑방’ 사업의 문제점.....	68
<그림 5-2> ‘우리동네’ 사업의 문제점.....	76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재단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고 실행해왔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3개년 동안은 ‘문화예술창조도시’ 비전의 ‘기초다지기’를 목표로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5개년 동안은 ‘구조세우기’를 목표로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라는 과제에 주력해오고 있음(성남문화재단, 2009: 106).
- 이처럼 ‘시민주체’를 강조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은 국내에서 생활예술 지원이라는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아왔으며, 문화예술 사회교육이나 문화다양성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사업 추진 시에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음.
 - 일례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09년 ‘전국문예회관운영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선한 ‘문화예술 10대 트렌드’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었음.
 - 국내 일간지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 걸쳐서 지역 문화재단들이 ‘생활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참고하는 사례가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비전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몸체만들기’를 목표로 추진될 3단계 7개년 계획의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1단계와 2단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

리하는 것은 성남문화재단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내 생활예술 진흥 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생활예술 진흥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적이 없고, 선구적인 시도라 할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선행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통해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빚어가겠다는 야심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를 실행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해당 사업 운영자들과 시민 참여자들,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관점, 입장을 포괄적으로 수합하고, 기존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활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준거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로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개되어온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정책 및 담론을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의 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현재 생활예술 사업이 도달한 지점을 이해하고 향후 지향점을 설계할 수 있는 일종의 지형도를 제시함.
- 문헌분석과 인터뷰를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한 시민/주민들의 목소리, 재단 직원들의 입장,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관점과 평가를 제공함.
- 성남문화재단이 실행해온 생활예술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과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체계와 성과지표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남 생활예술 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실행하여 향후 재단

이 생활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상의 접근들을 통해서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추진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체계화하고, 각각의 원인 및 결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추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이 연구는 약 8년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로서, 성남문화재단이 2006년부터 추진해온 생활예술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각적으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을 추동해온 개념적 정의와 미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 및 전환되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 이상의 개념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와 한계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장애물의 제거에 집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구할 것임.
- 이와 같은 논의는 생활예술 정책이라는 범주 아래서 추진된 구체적인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적인 담론의 형식으로 전개될 것인바, 이와 같은 질적인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서 보완되고 검증될 것임.
-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양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가지표’의 적용은 일관적인 운영체계와 사업 구성을 통해 가용한 데이터를 축적해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집중함.

2) 연구 방법

- 이상의 연구 목적과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장기적인 (long-term) 생활예술 사업 성과평가 연구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문헌분석: 자체 생산 보고서 분석, 사업별 프로젝트북 분석, 외부 전문가의 학술 논문 및 정책보고서 분석, 언론기사 분석.
- 인터뷰: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사업 담당자들 및 시민 참여자들과의 개인면접과 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성남문화재단에서 FGI 형태로 실행한 2013년 상반기 대화모임 자료 분석.
- 생활예술 평가지표의 설정 및 적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들을 참조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체계와 성과지표 항목을 설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 설문조사: 평가지표를 통한 사업 평가의 일환으로서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425명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2장. 개념적 고찰: 생활예술 개념의 이해

2.1. 생활예술 개념의 정의

- ‘생활예술’이란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강윤주 외, 2012: 1)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 위의 정의에 따르면, 생활예술은 엘리트 예술이 아니고 제도권 예술이 아니라는 반정립의 성격을 가장 중요한 특질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되는 예술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가 제시되고 최근 들어 생활예술 개념이 일정하게 운위되고 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개념과 정의가 문화정책계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예컨대 최근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3년 부천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 조사』에서는 ‘생활예술’ 대신에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전문예술단체 외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부천문화재단, 2013: 21)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 정의에서는 전문(professional) 예술, 엘리트 예술, 제도권 예술에 대한 대척점으로서의 성격은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지만, 자발적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예술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 즉 ‘자발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술활동을 지칭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자발예술(voluntary arts), 아마추어 예술(amateur arts) 등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비공식예술(informal arts),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 등의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음(성남문화재단, 2009: 34-35).

- 먼저 영국에서 ‘자발예술’은 ‘일반인들이 자기 개발, 사회적 유대, 여가와 유흥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전문적 예술’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8년 발표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발예술 또는 아마추어 예술에 참여하는 인구수는 약 5만 여개 단체에 걸쳐 총 6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국에는 자발예술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VAN(Voluntary Arts Network)가 300여개에 이르는 자발예술 단체들을 회원으로 거느리면서 1991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비공식예술’이란 개념을 통해서 예술계에서 통용되는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전문적인 예술 활동에 대비되는 실천, 즉 ‘구조화되지 않은 공간들(길거리 또는 주택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비고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칭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예술은 향유와 참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해되어 옴.
- 또한 ‘참여예술’이란 개념도 ‘전문적인 공연, 미술, 문학, 미디어를 관람하는 것과 구별되는 일상적인 예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을 지시하면서, 일반인들이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가족적 유대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생활예술 개념을 (1) 일상생활 속에서 (2) 일반인들에 의해서 (3)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음.

<표 2-1>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대조적 특징

	생활예술	전문예술
터전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구조화된 예술계 속에서
주체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전문예술가와 비평가에 의해서
동기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 (자발예술, 참여예술)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활동

-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라는 내용은 생활예술이 발생하는 터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비공식예술’ 개념에서 잘 드러나듯이 구조화된 예술계와 대척점에 자리하는 생활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일반인들에 의해서’라는 내용은 생활예술의 주체를 의미하는 바, 전문 예술가와 전문비평가가 아닌 일반인들, 즉 아마추어 예술가와 비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지시함.
 -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향유되는’이란 내용은 자발예술이나 참여예술 개념 등을 통해서 강조되는 생활예술 활동의 동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임.
- 물론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위치설정(positioning)이 모든 예술적 실천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746년 샤를 바뵈에 의해 정립된 근대적인 ‘예술’ 개념의 출현배경과 대비되는 새로운 예술적 실천의 양태로서 생활예술의 변별적 자질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바뵈는 『단일한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이상적인 모방이라는 원리가 회화, 조각, 건축 등 르네상스 이래로 디세뇨(disegno), 즉 미술이라고 불려온 조형적인 활동과 시, 음악, 무용 등 공연과 연계된 활동을 관통하는 원리라고 규정하고, 근대적인 예술 개념과 체제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였음.
 - 이후 근대 미학의 발전 속에서 ‘예술’은 여타의 기술(techne)들과 분리되면서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심미적 발전 과정의 최고봉으로 격상되었고, 취미(taste), 천재, 자율성 등의 개념들과 결합하면서 일상생활로부터 증류되어 독특한 형식주의적 함의를 띠게 됨.
 - 생활예술 개념은 이러한 순수예술, 고급예술, 전문예술, 엘리트예술, 공식예술 중심의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관심과 동기에 의한, 전방위적인 공간 및 영역에서 펼쳐지는, 아래로부터 생성되어 솟구쳐 오르는 예술적 실천을 지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2.2 생활예술 활동의 유형 구분

- 생활예술을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자발예술, 참여예술)’이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위 정의의 범주를 구성하는 터전, 주체, 동기 등 각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구분을 통해 생활예술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음.

- 첫째, 생활예술의 터전으로서 예술계와 대립되는 일상생활이란 단순한 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생활세계 속에 존재하는 공적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란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적인 삶의 조건과 관심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생활예술의 실천은 이와 같은 ‘공간적 공유’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간적 공유는 생활예술 활동의 중핵이 되는 ‘생활예술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생활예술 공동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간적 공유에 더하여 대표적인 생활예술 공동체의 실질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해온 사랑방 클럽들은 예술 동호회로서 ‘관심 공동체’ 또는 ‘취향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여러 동네의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cf. 윤소영 외, 2009).

- 이 두 가지 외에도 공간적 공유를 통해서 생활예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위로는 기업의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존재하는 바, ‘직장 공동체’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공동체들은 비록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을 통해서 (상대원 공단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이후로는) 본격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여가 환경 조성’이라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전략적 과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문화정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예컨대, 현재 문체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2013년 9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2017년 24개 산업단지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

를 직장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와 연계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확산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예술 정책은 크게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직장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근접한 공간을 터전 삼아 진행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생활예술 공동체를 진흥하려는 정책 역시 각 공동체의 성격적 차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입안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그림 1-1> 생활예술 공동체의 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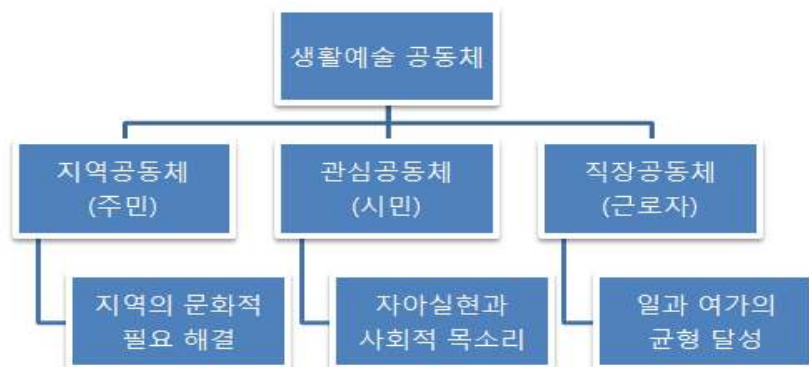


- 둘째로, 생활예술의 주체로서 상정된 ‘일반인’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추어 예술가 및 예술애호가들이 생활예술 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직장공동체의 서로 다른 특성에 상응하여 공동체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생활예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경우, 주체가 되는 일반인은 ‘주민’으로 개념화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예술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관심공동체’의 경우,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그 구성 범위에서 구 단위와 같은 특정한 행정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공동체보다는 지역성(locality)이 훨씬 느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술적 배움과 향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성과 관점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2000년대 후반에는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보편화되면서, 일반적인 의미의 관심공동체의 범위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나(e.g. DAUM이나 NAVER의 육아 또는 요리 카페), 예술동호회 성격을 갖는 생활예술 관심공동체는 정기적인 연습이나 사회 공헌 활동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느슨하게나마 ‘공간적 공유’라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임.

- ‘지역공동체’의 주체를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문제해결에 관심을 지닌 ‘주민’, ‘관심공동체’의 주체를 문화예술의 형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지닌 ‘시민’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직장공동체’의 주체는 자신의 일터에 기반을 두고 문화예술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와 관심공동체의 성격을 혼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1-2> 생활예술 공동체의 유형별 주체와 목적



-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유사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생활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해당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culture and the arts)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수련,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수립, 공동체 외부에의 공헌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생활예술 정의의 마지막 대목을 구성하는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이라는

내용은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로서 주민, 시민,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기본 관심(지역의 문화적 필요 해결, 자아실현과 사회적 목소리, 일과 여가의 균형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것임.

-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창작 또는 비평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나오는 자발성과 자생력이 생활예술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천이자 동기가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생활예술의 자발성과 순수성은 칸트 이후로 근대 미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예술의 자율성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후자가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취미판단, 즉 무관심적 주목에 입각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개인과 생활예술공동체,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의 요청이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임.
- 또한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로서 일반인, 즉 비전문 예술가가 보여주는 자발적 참여라는 특질이 해당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전문 예술가나 매개자의 참여를 거부하고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왜냐하면 이른바 전문예술가로서 ‘커뮤니티 아티스트’(전병태, 2007: 17-18)들이 일반인들의 예술 창작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자, 참여자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는 촉매자, 비전문가 및 준전문가들의 예술 숙련을 이끌어주는 교육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생활예술 공동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생활예술의 주체가 주민, 시민, 근로자의 정체성을 지닌 아마추어 예술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생활예술의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생활예술 활동이나 사업에서 전문예술가나 지역활동가, 문화예술 행정가 등이 매개자, 촉매자, 조력자 등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으며, 양자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때 해당 생활예술 공동체의 관심과 목표도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3 생활예술 활동의 지향

- 이상에서 살펴본 생활예술 개념의 정의와 그로부터 비롯된 보다 세밀한 유형 구분은 생활예술 공동체의 실제적인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생활예술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직장공동체를 가로질러서 공통적으로 추진 또는 추구되고 있는 주요 활동은 (1) 수련 및 학습, (2)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3) 지역 및 사회공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1-3> 생활예술 공동체 주요 활동의 세 층위



-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생활예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활동은 ‘수련 및 학습’으로서 해당 공동체 내부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문화공동체 또는 예술공동체의 근원적인 조건으로서 구성원들의 예술적-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 층위는 생활예술 공동체 간의 교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공동체 유형별 교류(e.g. 사랑방 클럽 네트워크 사업)와 공동체 유형간 교류(e.g. 우리 동네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 축제에 사랑방 클럽들의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주요

활동은 공동체 간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예술 공동체 간 협력과 경쟁을 자극하는 것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생활예술 공동체 간의 교류는 공동체 내부의 수련이나 학습과는 달리 여러 공동체들 사이의 공통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교류를 촉진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매개자 또는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역할은 관련 공동체 내부의 인재를 발굴하여 수행될 수도 있고 전문 예술가나 행정가의 지원을 통해서 수행될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 비공식예술, 아마추어 예술, 자발예술, 참여예술 등의 개념 성좌(constellation)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생활예술 활동을 여타의 예술적 실천과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층위는 ‘지역 및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앞선 두 층위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과 시민과 근로자라는 각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이 지닌 기본 관심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임.

- 즉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요 활동은 공동체 내부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관 공동체 사이의 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나아가서는 내부의 역량축적과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체 외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해당 공동체들이 뿌리박고 있는 터전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관심으로 발전해나간다고 할 수 있는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은 이 세 층위를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응축적으로 제시해왔음(전수환, 2009).

○ 이와 같이 생활예술은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자발예술, 참여예술)’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생활예술 활동의 층위 구분에서 잘 드러나듯이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적 영역에서 전개하는 비전문적인 예술적 실천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대신에 그 근원이자 궤대로서 문화공동체적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은 이와 같은 문화공동체적 관점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는바, 이러한 문화공동체적 관점의 생활예술 이해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견해로서 예술 지상주의적 관점과 도구주의적 관점과는 다음과 같이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표 2-2> 생활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화공동체적 관점

	예술 지상주의적 관점	도구주의적 관점	문화공동체적 관점
목적	예술 그 자체	비예술적 목적(경제 발전, 정치적 선전)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숭배의 대상	기능적 수단	창의적인 과정

출처: 성남문화재단(2009: 32-33)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연결되고 결속된 공동체’를 ‘문화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문화공동체적 관점의 예술 이해는 ‘예술을 물신화’하는 대신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생동하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예술 지상주의적 관점과 다르며, ‘예술을 도구화’하면서 그 외적인 효용에 집착하는 대신에 예술의 다양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도구주의적 관점과도 구별됨.
- 이와 같은 예술 이해는 예술 활동의 주체를 제도화된 예술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이 존재하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으로 확장시킨다는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구분한 생활공동체의 세 유형을 상기한다면, 주민-예술가와 예술가-주민의 상호작용, 시민-예술가와 예술가-시민의 상호작용, 근로자-예술가와 예술가-근로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술의 본유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최대치로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생활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은 ‘예술 그 자체’도 아니고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선전과 같은 ‘비예술적 목적’도 아니며, 생활예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3장. 역사적 고찰: 성남 생활예술정책의 진화 과정

3.1. 1단계 3개년 사업(2006-2008)의 비전과 기본구상

1) 비전: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

-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사업은 2006년,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문화정책사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3단계 1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 위의 비전에서는 두 차원이 따로 주목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생활예술’에 관한 개념 고찰에서 살펴본 바 제도권예술에 대한 대안적 예술 실천의 양태를 강조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예술 활동의 중심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복합적인 개념임.
- 2006년에 발간된 『기본계획 연구』는 ‘문화도시’를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1985년 유럽 문화도시 제도를 발의하면서 제정한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미학’이 있는 도시로 특징하고, 창조도시를 리처드 플로리다가 창조계급에 관한 저서에서 주창한 바 ‘창의적인 인력’을 유인하고 그들이 활발히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로 규정하면서, 두 개념을 종합하여 성남이 추구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정의하고자 함.
- 이에 따르면, 성남이 추구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비전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되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의 창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문화도시를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함(성남문화재단, 2006: 12).
-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생활예술’ 개념과 ‘문화예술 창조도시’ 개념의 논리적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의 비전은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창조계급(미국 노동인구의 약 30%에 달하며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종사하는 전문가 계층) 유인이라는 다소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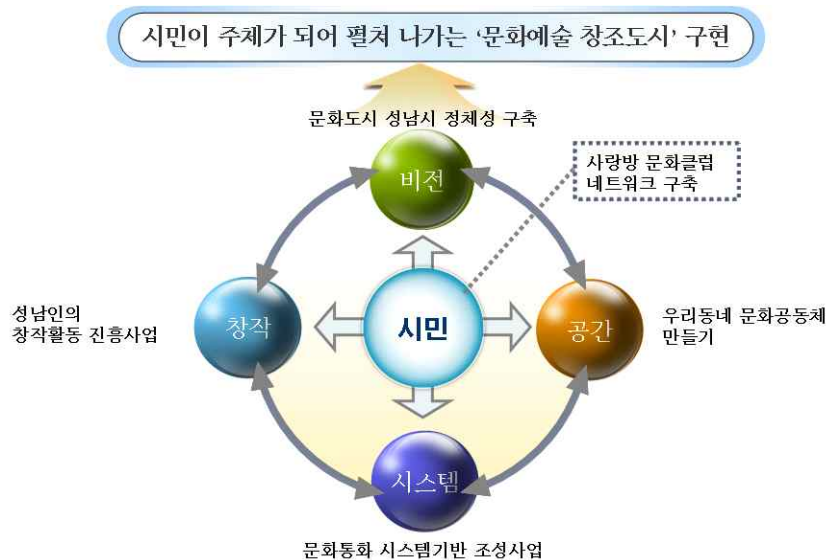
엘리트주의적 접근보다는, 모든 시민을 창조계급으로 육성하여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여러 국면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문화공동체적·문화민주주의적 접근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은 1)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추구, 2)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3) 기존도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 제시, 4)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비전제시 등 문화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산업, 환경이나 복지 등과 결합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었음.

2) 기본구상: 5대 사업을 중심으로

- 이처럼 야심찬 ‘시민주체, 문화예술 창조도시’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던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민을 중심으로 비전, 창작, 공간, 시스템을 아우르는 다섯 가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대 문화정책사업을 실행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1>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출처: 성남문화재단(2006: 113)

- 이 개념도를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집중해온 생활예술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사업으로서 성남의 문화정책 관련 현황조사(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클럽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공간실태조사 등) 및 주요정책연구사업, 다양한 대화모임,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성남 문화정책의 비전을 수립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도시에 걸맞은 방향으로 성남시의 정체성을 빚어가고자 하는 것이었음.

<표 3-1> 통계조사 및 백서발간 계획 (ibid., 121)

분 야	비 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	3년 주기				
문화클럽실태조사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문화공간실태조사	"				
성남문화예술백서발간	1년 주기				

- 개념도의 세로축 상단에 자리한 ‘정체성 구축’ 사업이 성남시 문화정책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들의 일관성 있는 기획 및 수립을 위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개념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시민 주체’란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예술 사업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10대 트렌드’에 선정,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주목받은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관련 사업은 개별 클럽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클럽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비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 또한 이 네트워크의 구성에서 재단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운영역량에 기초한 운영체계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표방한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표 3-2>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3단계 계획 (ibid., 123)

1단계: '3개년 계획'			2단계: '5개년 계획'	3단계: '7개년 계획'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2013년)	(2014년~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지역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1,103개 문화클럽 조사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사랑방 문화클럽 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오픈 및 클럽파티 (www.clubsb.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 문화클럽 리더 협의회 구성 사랑방(문화공간)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 핵심 문화클럽의 지원과 공연 등 발표활동 클럽지기 및 클럽통신원 워크숍 탄천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의 클럽주간 발표축제의 장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회 사랑방 문화클럽 페스티벌 개최 문화클럽 DB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활동 및 On/Off 활동 시스템 정착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확산 및 클럽지원을 통한 발표 및 활동확대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과의 연계확대로 문화클럽활동 기반조성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1,000개가 넘는 문화예술 클럽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예술시민의 도시 전형을 창출함 문화클럽 On/Off DB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 문화클럽 페스티벌에 세계의 문화클럽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의 축제로 발전시킴 성남이 문화클럽의 도시로서 세계의 도시와 교류하며 시민주도의 문화도시 창조 전형을 발전시켜 나감

□ 셋째로, 개념도의 가로축 우편에 위치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1단계 동안 골목길, 아파트, 공단, 상가, 시장 등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문화예술 작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성남시의 다섯개 지역 주민과 함께 해당 동네를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

<표 3-3>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3단계 계획 (ibid., 121)

1단계: '3개년 계획'			2단계: '5개년 계획'	3단계: '7개년 계획'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2013년)	(2014년~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평4동 문화공동체 만들기 -환경개선 : 한평신타, 학교벽화, 화단시상식 -시민참여 : 문화상징 만들기, 우리동네는 달라요, 어린이창작기획단, 상가아트리폼, 예술장터 -문화행사 : 태평동영화제, 움직이는 사진관,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공동체 2개 모델 개발 -아파트지역문화공동체 -공단지역 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 만들기 컨설팅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및 실무자 워크숍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공동체 2개 모델 개발 -상가지역 문화공동체 -시장지역 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 매뉴얼 보급 45개동 실무자 교육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개 동 단위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추진 실무 위원회 구성 구별 단위 추진위원회가 동네특성을 바탕으로 지구계획 추진 지원센터의 워크숍과 컨설팅 체계화 45개동 문화공동체가 년중 펼치는 동네축제 45개동 동네 프로젝트 결과보고 매뉴얼 발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로부터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체계구축 동네마다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추진위원회가 독특한 실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전계획을 추진함 성남시 전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계획과 동네 프로젝트를 연계시켜 주민이 주체로 움직이는 문화도시 만들기 실천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생활공동체의 세 유형 중에서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이 주도하는 관심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동

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예술가, 예술가-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두 사업은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특질을 공유하면서 전개되어왔음.

- 시민/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사업설명회, 조사연구 사업 등을 통해 증거에 입각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
- 공연, 전시, 문학 등으로 사랑방클럽의 유형을 구분하듯이 아파트, 공단, 시장 등으로 마을 유형을 나누어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
- 관련 사업에서 재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참여와 자치 역량에 기초한 사업 추진체계 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
- 해당 사업을 통해 단일 클럽이나 한 마을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 전역에 존재하는 유사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빚어가기 위한 비전을 지님.

□ 한편 가로축의 원편에는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전문예술가에게 기금을 배분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진흥 사업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서, ‘우리동네’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동네에 시민창작 갤러리를 오픈하고자 한 ‘시화갤러리’ 사업, 성남을 주제로 한 희곡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배출하고 공연을 제작하고자 한 ‘퍼포밍아트’ 사업, 국내의 국제 영화제와 연계하여 화제작 상영과 청소년 영상작품 상영 등을 시도한 ‘영화제 속의 영화제’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음.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나 여타 문화재단의 창작진흥 사업으로부터 구별 짓는 지점은 전문예술가 지원사업을 ‘생활예술 진흥’이라는 대의와 연결시킴으로써 문화예술 지원의 ‘쌍둥이 임무’라고 불리는 창작 진흥(수월성 원칙)과 향유 확대(접근성 원칙)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으나, 이 사업은 첫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다음해부터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되었음.

□ 마지막으로 개념도의 세로축 하단에 자리하는 ‘문화통화 시스템기반 조성’ 사업은 범정화폐가 아닌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화통화를 도입하여 ‘시민, 동호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생활예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교환에 지역화폐(‘넙실’)를 사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및 인력

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사람-커뮤니티-지역의 풍요로운 문화적 연결고리를 이루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지역화폐 도입 사업은 대전이나 과천 등에서 먼저 시도되어 일정한 성과를 이룬 바 있지만 문화예술 생산과 소비, 유통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하기 위한 문화예술교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부문에 지역화폐가 도입된 것은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통화가 활성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시민주체의 여러 갈래 문화예술 활동들이 서로 융합하고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채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표 3-4> 문화통화 시스템의 기반조성 3단계 계획 (ibid., 127)

1단계: '3개년 계획'			2단계: '5개년 계획' (2009년~2013년)	3단계: '7개년 계획' (2014년~2020년)
2006년	2007년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시스템 기반조성 -문화통화실행모델연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통화홍보사업 (세미나) -문화통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통화지역협의체 구성 -문화통화 선진지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동체 실행 모델 운영 -사랑방문화클럽 -지역아동센터 ▪ 문화통화네트워크 사업 ▪ 문화통화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시스템 실행 모델 확대 ▪ 문화통화시스템 매뉴얼 보급 ▪ 문화통화네트워크사업 ▪ 문화통화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 전산시스템 구축 ▪ 성남문화통화 운영 사무국 가동 ▪ 문화통화 전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문화통화 시스템의 완전가동 및 정착

3) 1단계에서 발생한 5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 이상과 같이 야심찬 비전과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2008년 초에 발간된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이하 『연계발전』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미 1단계 사업의 종료 이전에 5대 문화정책사업의 체계화 또는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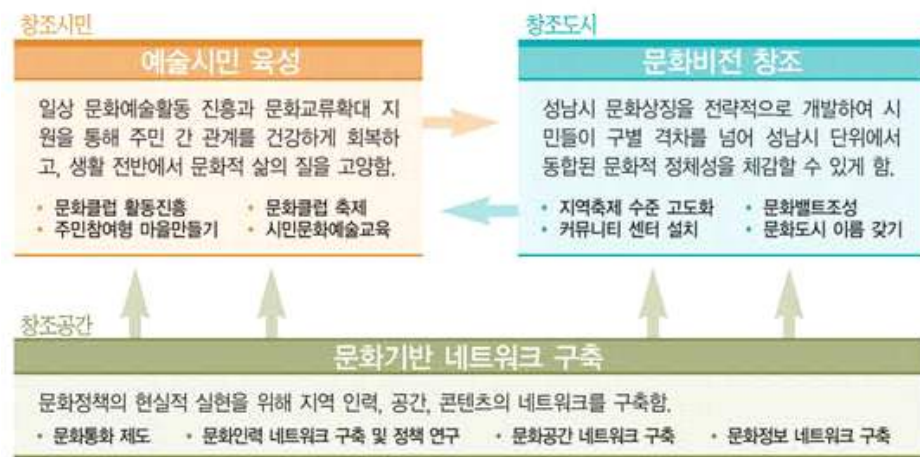
-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2006)에서는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5대 사업을 제시하고 각 사업들 사이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구조를 개념화하였는데, 2년여의 과정 동안 정책을 집행하면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성남문화재단, 2008: 104).

○ 또한 생활예술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은 ‘사업 시작 전 구상하였던 5대 주요 문화정책 사업 간의 관계가 사업 추진 중 변화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음.

- － 첫째, 2007년 중반을 기점으로 연구 사업과 실태조사 사업들은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사업’으로 일괄 통합되었음.
- － 둘째, 2008년을 기점으로 성남시민 창작활동 진흥 사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흡수되었음.
- － 셋째, ‘시민 참여적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남시 내외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단순히 초기 단계의 기본구상을 기계적으로 따르면서 각 사업을 등가적으로 이해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인식이 부상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시민과 주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걸맞게 기존 사업의 통합·합병, 새로운 사업의 편입 등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

<그림 3-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통합사업 모델



출처: 성남문화재단(2008: 106)

○ 이 모델에서는 ‘시민주체’와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의 두 요소가 각각 ‘창조시민’과 ‘창조도시’라는 이름의 사업 범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에 더하여 ‘문

화기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번째 범주가 사업들의 하부구조로 제시되었음.

- 5대 사업에서 크게 비중이 확대되어온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관련 사업들은 '창조시민'(예술시민 육성) 범주로 묶이면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이 성남의 문화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범주의 선두에 배치되었음.
- '창조도시'(문화비전 창조) 범주는 기존 5대 사업에서는 실제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로드맵을 제공하는 조사 및 연구의 형태를 띠었던 비전/정체성 구축 부문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조시민' 범주가 미시적 정책관점을 담고 있다면 '창조도시' 범주는 거시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함으로써 '구별 격차를 넘어 성남시 단위에서 통합된 문화적 정체성'을 수립 및 확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창조공간'(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 범주는 기존의 '문화통화'가 담당했던, 문화정책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상호 연결망 구축이라는 사업방향을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1단계의 초기 2개년 사업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으로 지적'(성남문화재단, 2010: 20)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통화 사업에 더하여 유관한 여러 사업들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1단계 후반부에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 재구조화 시도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함.

- 첫째는 성남문화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애초의 『기본계획』(2006)에서 제시된 기대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임.
- 이러한 방식의 성과평가는 1년이나 2년 단위의 단기 사업에서는 타당한 평가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문화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전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사한 방식의 정책 재구조화 요청이 2단계 5개년 동안에도 지속적

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의 현실과 지향 사이의 갈등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우선, 전술하였듯이 5대 사업과 기타 여러 사업을 초기의 문화정책 비전과 연결시키면서 3범주, 12과제로 새롭게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업 참여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각 사업들의 연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문제 의식을 품고 있었음.
- 그 중에서도 ‘정체성’ 부문이 ‘지역축제수준 고도화’, ‘문화벨트조성’, ‘커뮤니티 센터 설치’, ‘문화도시 이름 갖기’ 등의 새로운 사업과제를 포괄하면서 ‘창조도시’(문화비전 창조)라는 범주로 승격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초기의 구상이 지나치게 미시적 관점에 집중함으로써 도시 문화정책의 거시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성남문화재단, 2010: 21).

○ 『연계발전』 연구(2008)는 생활예술 정책에 토대를 둔 상향적 체계 또는 미시적 정책관점을 도시 전체의 발전을 기획하는 하향적 체계 또는 거시적 정책관점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5대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이러한 양대 사업범주를 지탱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유의미한 시도였음.

- 그러나 1단계 추진 과정에서 급하게 제시된 구조조정 모델로써 당시에는 정책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2단계 사업의 계획 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되는바, 그 후에도 예기치 못한 정치적·경제적 상황변화에 의해서 이 구상들은 제한적으로 실행되거나 일부는 아예 시도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출간된 계획서나 연구서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복합적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줌.

3.2. 2단계 5개년 사업(2009-2013)의 구조와 흐름

1) 2단계 사업 계획의 특징: 문화공동체적 관점, 5대 정책사업의 수정, 기업·산업에 대한 관심

□ 1단계 3개년 동안의 ‘기초다지기’ 사업이 완료되고 2009년부터 2단계 5개년을 겨냥한 ‘구조세우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 계획 연구: 2단계 5개년 창조시민·창조공간·창조도시』(이하 『2단계 5개년』 계획)가 발간되었는데, 이로부터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발전 및 진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1단계에 제시된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각 단계별 추진 목표가 보다 분명한 명제로 제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공동체’ 개념이 2단계 사업의 목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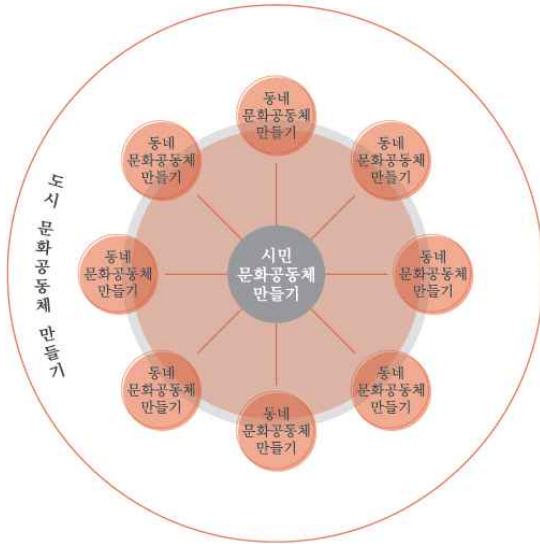
<표 3-5> 성남문화재단 단계별 발전계획의 개요

단계	의의	목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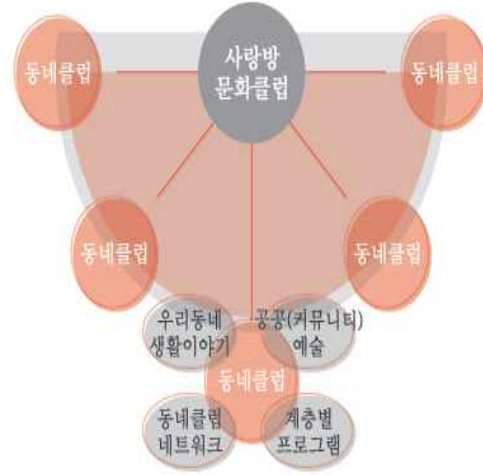
출처: 성남문화재단(2009: 12)

- 즉, 2단계 ‘구조세우기’의 목표로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가 설정되면서 ‘문화공동체’ 개념이 강조되었는데, 앞서 생활예술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문예술과 구별되는 생활예술 실천은 ‘예술지상주의’나 ‘도구주의’와 달리 그 근원 및 지향에 있어서 ‘문화공동체적’ 접근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로서 이러한 인식이 전경화된 것은 이론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기존 5대 사업 중 2대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결합하여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문화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보다 간결하고 통합적이면서도 연계적인 사업 개념도가 도출되었으며(그림 3-3), 두 사업 간의 연계 모델 역시 훨씬 더 명징한 형태로 제시되었음(그림 3-4).

<그림 3-3> 문화공동체 시스템 (ibid.,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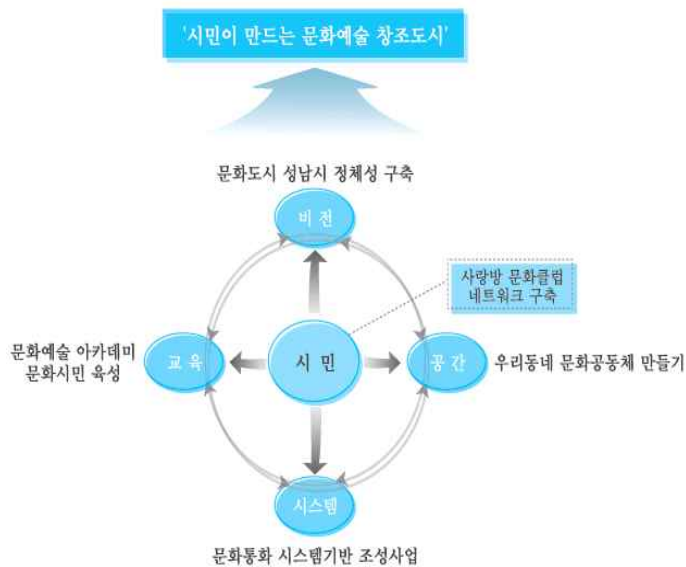


<그림 3-4> 동네클럽 네트워크 시스템 (ibid.,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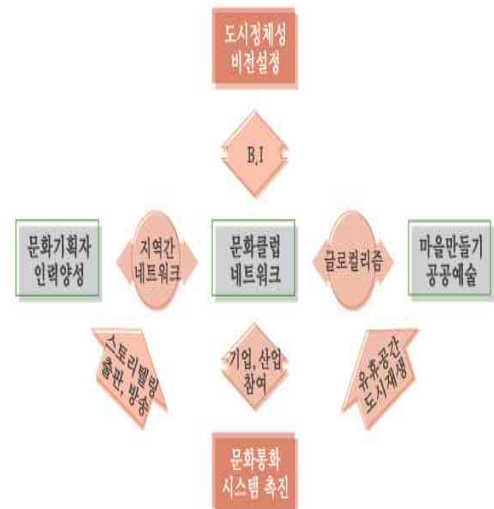


○ 둘째, 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도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5대 정책이라는 틀은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음.

<그림 3-5> 수정된 5대 정책 개념도 (ibid., 58)



<그림 3-6> 새로운 정책 관계도 (ibid., 146)



- <그림 3-5>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성남시민의 창작 지원이라는 범주가 차지하던 수평축 왼쪽의 사업 범주는 해당 사업이 1단계 중반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통합되면서,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범주로 대체되었음.
- 2단계 5개년 동안 5대 정책사업을 통해서 성남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수립 및 확산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5대 사업간 관계도’(그림 3-6)에서는 위의 새로운 ‘교육’ 사업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대두된 휴먼웨어, 즉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사업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
- 새로운 관계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통화 시스템 축진을 매개하는 자리에 ‘기업, 산업 참여’라는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는 생활예술공동체의 유형 중에서 관심공동체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에 비해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의 직접적인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직장공동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표 3-6> 2단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추진 전략 및 방안

1	성남시 ‘문화발전 2020 계획’과의 연계 추진
2	유휴공간의 예술공간 활용
3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강화
4	문화공동체 발전을 위한 문화매개자 육성
5	문화클럽의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6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창의적 역량 제고
7	문화공동체의 중요성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강화

출처: 성남문화재단(2009: 114-146)

-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라는 공통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의 『연계발전』 연구가 2009년의 『2단계 5개년 계획』의 밑바탕이 된 것은 분명한데, 앞선 계획 및 연구가 제시한 ‘3범주 12과제’가 새로운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임.
- 물론 ‘문화공동체적 접근’을 도입하여 기존 생활예술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한 것, 1단계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를 반영하여 5대 정책사업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각 사업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한 것, 또한 관심공동체

와 지역공동체에 더하여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요한 유형인 직장공동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생활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발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계 방안 연구’가 ‘창조시민’ 범주(미시적 정책 접근)와 ‘창조도시’ 범주(거시적 정책 접근)를 연계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의도로 삼고 있었음을 기억할 때, 두 범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제시되었던 프레임워크나 세부 사업(예컨대 문화벨트 조성이나 지역 대표축제 육성 등)이 특별한 언급 없이 증발해버린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아쉬운 지점임.

2) 2단계 사업의 재통합화를 위한 『포지셔닝』 연구와 그 이후

- 이처럼 2008년의 『연계발전』 연구가 제시했던 세 범주가 ‘2단계 5개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의식하면서, 2010년에는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이하 『포지셔닝』)을 위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화’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서 5대 사업을 필두로 한 성남 문화재단의 정책들을 보다 간결하고 유기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음.

<그림 3-7>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재통합 개념도



출처: 성남문화재단(2010: 31)

- 먼저 2008년 『연계발전』 연구에서, 구별 격차를 넘어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설정하고자 한 ‘창조도시’(문화비전 창조) 범주를 ‘문화비전’ 범주로 계승하면서 나(생활예술 지향 비전)-우리(커뮤니티 지향 비전)-도시(사회공헌지향 비전)로 나아가는 단계를 설정하고, ①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과 ②문화비전 공유사업을 해당 범주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한편 ③‘창조시민’(예술시민 육성) 범주는 ‘문화프로젝트’ 범주로 계승되었으며, ③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④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성남문화재단이 ‘선택 및 집중’을 해야 하는 두 개의 대표 프로젝트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2008년 연구에서의 ‘창조공간’(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 범주는 ‘문화지원체계’라는 범주로 이어지면서 과거 정보, 공간, 인력, 통화 부문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을 ⑤육성(생활예술학교 사업), ⑥법·제도(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⑦공간(생활예술센터 사업), ⑧지원조직(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의 내용으로 새롭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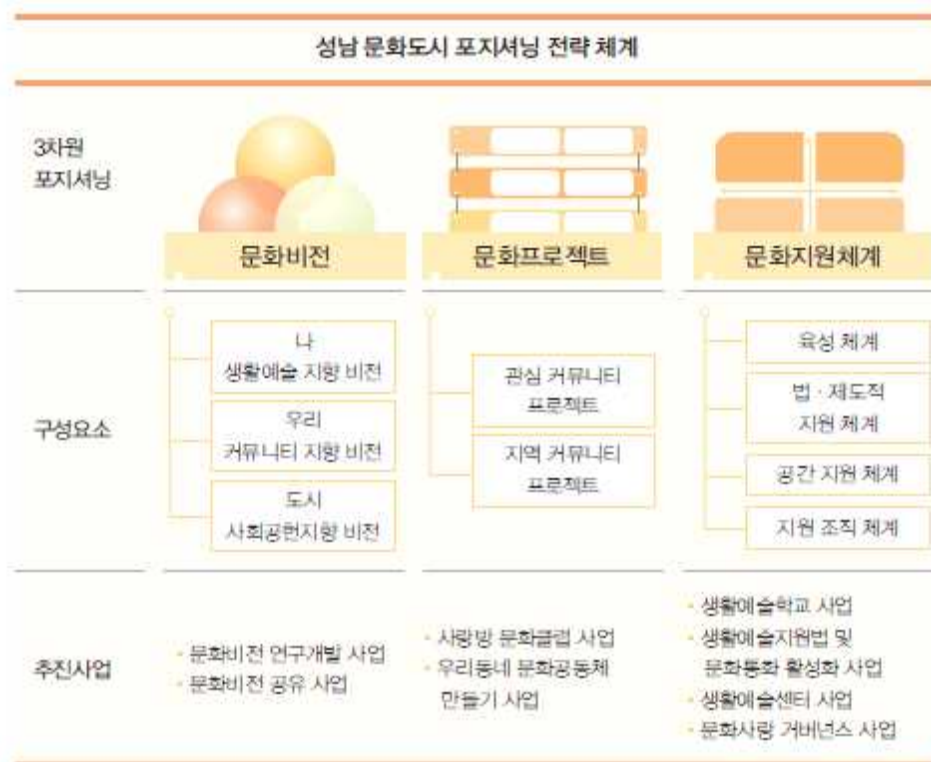
<표 3-7> 『포지셔닝』 연구가 제안한 핵심 전략 및 사업

전략	추진사업	세부 내용
문화비전 포지셔닝	· 문화비전 연구개발사업	· 개방형 연구체계 운영 · 연구센터 설립
	· 문화비전 공유사업	·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 지역-국가-세계 연계 체계 마련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축사업	· 클럽육성(사랑방)-네트워크활성화(사랑마루)-축제(사랑마당) 발전 체계 마련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동네만들기-동네네트워크-문화공동체 도시 만들기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 육성 체계 : 생활예술학교	· 생활예술가, 기획자, 교육자 육성
	· 법/제도적 지원체계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 생활예술지원 조례 제정 · 문화통화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수정, 보완
	· 공간 지원체계 : 생활예술센터	· 오프라인/온라인 공간 조성
	· 지원조직 체계 :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 문화기획부 조직 개편 및 전문화 · 네트워크지원 거버넌스 구축

- 이러한 노력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을 무엇을 가지고(핵심자원/지원체계:

⑤, ⑥, ⑦, ⑧), 무엇을 실행하여(핵심과제/프로젝트: ③, ④), 무엇을 이루겠다(핵심목표/비전: ①, ②)는 형태로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단계 5개년』 연구(2009)가 깊은 이론적 성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정책 지침으로서의 명징성(clarity)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8>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재통합 개념도



출처: 성남문화재단(2010: 33)

- 그러나 사업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여러 장점들이 탈각되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대표적으로, 2008년 연구의 심층적인 의도였던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라는 문제의식은 (개념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구현되지 못하였음.
 - 마찬가지로 2009년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창의적 역량 제고’라는 과제는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축소되어 ‘공간지원체계’ 부문에서 흔적만 살짝 남게 됨.

□ 2010년 이후로는 사업 초기부터 문화재단의 인력들과 외부 연구자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했던 ‘정책실행 태스크포스’의 해체와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큰 규모의 ‘정책 기획’ 관련 연구는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았음.

○ 2011년에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정책기획과와 공동으로 『성남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세계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것은 ‘포지셔닝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도입과는 거리가 있었음.

<표 3-8> 『성남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세계화 연구』의 제안 사업

전략방향	세부 실행 과제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청소년층 참여 강화 · 은퇴 예술인 파트너십 구축 · 타 축제와 파트너십 구축 · 로컬 비즈니스 연계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 및 인벤토리 구축 · 조례 제정 · 성남시 문화구역 지정
온라인 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관련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 성남시 문화이벤트 주최에 필요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구축

○ 따라서 2010년 1월에 『포지셔닝』 연구를 통해 제시된 ‘3차원 8사업’ 모델(cf. 표 3-7)이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사업의 2단계 진행을 위한 최종적인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단계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 및 수행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목표한 산출물(output)은 얼마나 생산되었고, 궁극적인 목적(outcome)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구조세우기’를 목표로 진행된 ‘2단계 5개년’은 ‘기초다지기’를 향해 첫발을 내딛었던 ‘1단계 3개년’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사실임.

- 우선 1단계 3개년 성과에 대한 지역의 지지 및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에서 성남의 생활예술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것,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던 인재들이 재단에 유입된 것,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민선 5기 집행부가 출범한 것 등이 2단계 사업을 뒷받침했던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2단계 5개년’은 상당한 위협요인을 마주하면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 그리고 이와 맞물려 민선 4기 집행부의 합리적 재정운영 미흡이 새로운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성남시가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재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재단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기회요인들과 위협요인들이 훗날 ‘2단계 5개년’ 계획의 실행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축소를 통해서 5대사업 중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표 3-9> 2단계 5개년 계획 중 3대 사업의 추진 상황

사업	주요 추진 방안 및 사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문화도시 성남 정체성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추진전략 수립 · 성남시 문화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문화도시 컨설팅 시스템 구축과 연구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추진 전략 수립은 시행했으나, 문화도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시스템과 연구센터 설립은 예산과 인력부족, 내부 공감대 미흡으로 추진하지 못함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모델(사랑방모델)의 확산과 2모델(동네모델) 기반 조성 및 확대 · 아트센터 거점의 거래 품목 개발 확대 · 3모델(도시모델) 실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사업 부진 속에 1모델(사랑방모델) 이후 단계가 추진되지 못함
문화예술 아카데미 창조시민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2009년 이후 계속 이 루어지지 못해 추진하지 못함

- 이번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자면, 2006년 『기본 계획』에서부터 2010년 『포지셔닝』 연구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생활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이

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성찰과 현실 속의 요구 및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업데이트해왔다는 점에서, 성남 문화재단이 생활예술 정책의 기획·계획 부문에 상당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다년간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축적되면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구조와 실체가 다듬어졌고, 우리나라 문화정책 현장의 종사자들이 주목할 만한 새롭고도 유용한 정책 실험이 일관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단계와 2단계 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상당히 다른 정책 프레임을 담고 있는 수정안들이 발표되면서 정책상의 혼동을 초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해당 계획의 하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하는데, 성남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새로운 연계방안, 새로운 포지셔닝 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원래의 중장기 계획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정책 사업의 업데이트라는 생산적 긴장의 측면도 있지만 사업 역량의 축적을 방해하는 소모적 긴장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단계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장. 평가 I : 문헌분석을 통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 2장과 3장은 각각 생활예술에 대한 개념적 고찰,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진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4장, 5장, 6장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되어 온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1단계와 2단계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각각 문헌 분석,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포함한) 지표평가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함.

○ 본장에서는 성남 문화재단이 출간한 주요 연구보고서와 프로젝트북 등을 중심으로 한 내부 문헌 분석과 외부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 및 언론 기사를 조사하는 외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 개요를 정리할 것임.

4.1. 자체 평가: 내부 보고서 및 프로젝트 북 분석

1) 연구보고서 분석

□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남문화재단이 생활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화기획부가 주도한 네 개의 대규모 연구프로젝트가 사업 목표와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바, 해당 연구들에서 제시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표 4-1> 『연계발전』(2008)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사업 범주	주요 성과
사랑방문화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 수립으로 자율적 민간자치 기구를 통해 문화정책에 시민의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민관협력 모델 제시 - 동호회를 전략적으로 생성하고 중압집권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민 동호회의 활동을 후방에서 연결·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사례로는 드물게 민간협력 모델로 이루어졌으며,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주요한 초점으로 두고 추진 - 공간을 유형화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엽적인 한 두 동네의 범위를 벗어나 성남 전역에서 사업의 효과를 공유하려는 기획

	- 성남시민 창작활동 진흥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를 일상 공간으로까지 넓히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
문화통화	- 시범사업인 1318 해피존 ‘나눔 라디오’의 성공적 수행 - 기반시스템 조성을 위한 ‘본격적 사업 추진에 앞서 해외 연수, 도입 모델 연구, 전문가 간담회 등의 긴 사전 준비 기간을 걸쳐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는 시도 ’
정체성 구축	- 지역 실태조사와 정책실천 TF 시스템을 통한 문화정책 연구를 통해 문화정책을 거대담론과 당위의 영역으로부터 지역주민 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데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공 하고,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마련하였다는 점

<표 4-2> 『2단계 5개년』(2009)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사업 범주	주요 성과
사랑방문화클럽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참여 시민의 자율적 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문화정책 추진과 민관협치의 모델 을 제시 - 문화동아리를 기금으로 단순 지원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민 동호회의 활동을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로는 드물게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공간을 5개로 유형화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적인 한 두 동네의 범위를 벗어나 성남 전역에서 사업의 효과를 공유하고자 시도 - 성남시민 창작활동 진흥 사업과 통합·연계함으로써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를 일상 공간으로까지 넓히고, 지역 주민들이 예술 창조의 주체로 나서도록 노력함
문화통화	- 시범 사업, 해외 연수, 모델 연구, 전문가 간담회 등의 다각적인 준비과정 을 거쳐 시행되었음 - 성남문화통화 모델연구에서 제안된 3단계 모델 중 제 1모델인 사랑방 연계 모델 이 2007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09년 현재 ‘사랑방’공간을 6호까지 지정 하고 개인 178명, 클럽 55개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총 34,306,000번실을 사용
정체성 구축	-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 근거 자료로써 현황 조사와 분석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와 전문가 그룹의 TF 시스템 운영을 통한 문화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마련 - 문화정책을 거대담론과 당위의 영역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란 영역으로 끌어당겼음

<표 4-3> 『포지셔닝』 (2010)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

사업 범주	주요 성과
사랑방문화 클럽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 창작 지원을 통해서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시민과 결합 하여 지역에 공헌하 고 문화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 것 - 일반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일상 공간을 변화 시킨 것
문화통화	- 성남시민의 문화적 활동의 자생력 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것
정체성 구축	- 대내외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도시의 문화적 비전 및 정체성의 수립 가능성 을 제시한 것

□ 앞의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본 성남문화재단 사업의 진화과정을 배경으로 삼아, 위의 세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1단계 3개년 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요하게 인지된 성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볼 수 있음.

○ 첫째는 **정책방향** 또는 사업목적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중앙집권적 정책집행, 탑-다운 방식의 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민의 자발성과 자생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을 구상했다는 점이 차별적인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적인 층위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 점차로 강조됨.

‘1단계 3개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생활속의 시민문화 저변 확대와 자생력 신장, 문화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증진과 공동체 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상(像)’을 제시했다는 점임’ (성남문화재단, 2009: 66)

○ 다음으로는 **사업관련 연구**에 관한 것으로, ‘정체성 구축’ 사업의 중핵으로서 문화재단의 인력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을 결합한 연구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계획 및 세부 계획이 입안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셋째는 **사업 구성**에 관한 것으로 『기본계획』(2006) → 『연계발전』(2008) → 『2단계 5개년』(2009) → 『포지셔닝』(2010)으로 이어지는 주요 연구들의 진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대 정책사업의 구조적·논리적 뼈대가 일관성을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파악한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면서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제고되어왔다는 사실이 강조됨.

5대 정책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주요 축으로 하며 이 두 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사업과 두 사업을 매개하는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 사업간 체계적이고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였음 (성남문화재단, 2009: 66)

- 마지막으로, 위 문건들은 사업 초기단계의 성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 과정상의 성과가 크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한 바대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럽게 제시되고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주관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사업 과정에서 5개 유형별 마을단위의 주민 협의체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 핵심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지일관 ‘민관협치’ 또는 ‘민간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이 강조됨.

- 이상을 종합하자면,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는 시민주도 정책모델 제시, 철저한 연구에 입각한 사업기획,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음.



<그림 4-1>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

2) 프로젝트북 분석

- 2단계 사업 과정에서 2010년 1월 이후로는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의 사업을 계획하는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재단 내부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주요 사업에 대한 매년의 진행상황 및 경과보고를 정리해서 출간한 ‘프로젝트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¹⁾
- 프로젝트북의 분석은 2단계 사업성과에 대한 재단의 개괄적인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앞서 파악한 1단계 사업성과의 계승 여부 및 어떠한 새로운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를 지님.
 - － 그러나 프로젝트북은 특정 사업, 즉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하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우리동네’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2단계의 또 다른 핵심 사업들로 제시된 ‘정체성’ 사업과 문화통화 사업을 포함한 ‘지원체계’ 사업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재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따르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북은 2007년 12월 출간된 <사랑방 21세기 다시 태어나다> 이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5권이 출간되었는바, 위 문헌들에서 제시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음.

<표 4-4>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목록

번호	제목	출간일
1	사랑방 21세기 다시 태어나다	2007.12
2	2009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2010.2
3	2010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2011.2
4	2012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시안)	2013.1
5	2012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1) 이 외에도 재단이 정기적으로 생산한 문건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한 ‘대화모임 자료집’이 있는데, 이 자료는 매년 주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을 평가하려는 목적 외에도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음. 다만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참조하였음.

- ‘착한 예술’ 또는 ‘새로운 예술의 선도적 사례’로서 전국적인 범례로서의 가치가 각종 수상을 통해 공인됨.

2010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착한 예술이 대세다!’였고, 그 대표사례로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이 뽑혔습니다. 문화부가 선정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예술이 대세다!”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은
친목이나 학습의 목적을 위한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위문공연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례로 발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2012년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시상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이 많은 사람들과 지역의 물모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많은 지역에 문화가 꽃 피울 수 있길” 당부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들 자발적으로 문화생활을 만들어가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새로운 하나의 가치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문화가 성숙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우 운영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그간 6년간 사랑방문화클럽이 가꾸고, 키워오고, 만들어온 결과에 대한 인정이다. 매우 기쁘지만 한편으로 우리 성남시만의 사랑방클럽이었다가 전국적으로 공인받았기에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모범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키워나가야 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 ‘성남의 힐링캠프’로서 자아실현을 촉진하고 시민의 일상을 문화예술로 치유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구(舊) 문화공헌프로젝트, 2012년부터는 시민문화클럽한마당이라고 불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방클럽의 활동은] 2012년 5월에서 11월까지 모두 31회의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이 공원, 역 광장,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등 성남의 곳곳에서 펼쳐졌다. 137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눈부신 재능이 성남 지역주민들과 만나 풍요로운 문화의 꽃을 피워냈다.

-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민예술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명실공히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성장

시민 누구나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여, 일상의 삶을 문화예술로 탄생시키는 사랑방문화클럽. 2012년 7월 현재 172개 클럽, 3,885명의 시민예술가들이 왕성하게 문화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자아실현, 사회공헌으로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을 가능케 하는 성남의 대표 브랜드다.

- ‘시민이 기획하고 창조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 － 년초의 클럽워크숍을 통해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이들 운영위원회가 ‘한마당’ 행사와 ‘축제’로 대표되는 연중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의결하며, 연말의 사랑방클럽활동 보고회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함.

[2012년 문화부에서 수상한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의] 심사기준은 ‘내발성’과 ‘지속성’에 있다. 내발성은 지역민 스스로 문화를 일궈나 하는 점이며, 지속성은 지자체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지역민들의 문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은 ‘주민이 도시의 브랜드다’라는 주제를 내세워 일관성 있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특히 내발성과 지속성 면에서 인정을 받아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와 문화공헌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
 - － 가령, 2010년,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악성뇌종양을 앓는 9살 소녀에게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100명 색소폰 불기’에 도전하여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동시에 새 생명 살리기를 소망하는 수백 명의 색소폰 애호가들을 각 지역에서 모여들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공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 또한, 2012년 제 6회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재단의 역할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클럽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실험이 시도되었으며, 그와 아울러 탄천설화의 주인공 ‘삼천갑자동방삭’을 주제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공연 형태를 도입하기도 했음.

- 국가적인 인지도를 근거로 전국적인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
 - 2009년 9월 15일 성남문화재단은 ‘세계문화클럽포럼’을 개최하여 미국(돈 아담스), 영국(로빈 심슨), 독일(안드레아스 캠프), 일본(나카다이 히로미), 불가리아(나데즈다 사보바)의 생활예술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자발적 예술활동과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기회를 마련함.
 - 이 포럼에는 부산, 청주, 강원, 대전 및 서울과 경기지역 등 전국의 문화재단 및 문예회관 등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찰과 함께 생활예술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같은 맥락에서, 2012년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성남의 클럽만이 아니라 춘천·대구·청주 등 전국 20여 개 클럽이 참가하여 중앙공원과 야탑역 광장에서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을 개최하였음(전국 풍물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풍물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인천·경기지역 밴드와 통기타 합주단, 하모니카 연주단이 성남시민들과 어우러져 축제를 진행)
- 사랑방클럽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통화 확대 및 공간 확보 등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연습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2011]부터 큐브플라자 3층의 사랑방아트홀과 앙상블시어터 3층의 사랑방연습실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2012]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과 MOU를 맺어 공간사랑방을 연계 운영하고, 추가로 큐브플라자 1층과 성남시민회관 지하 1층에 문화복합공간 조성 계획을 세워 연말에 완공했다.

- 이상을 종합하면, 2단계 사업기간 중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축 사업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음.
 - ‘작한 예술’ 또는 ‘새로운 예술의 선도적 사례’로서 전국적인 범례로서의 가치가 각종 수상을 통해 공인됨
 - ‘성남의 힐링캠프’로서 자아실현을 촉진하고 시민의 일상을 문화예술로 치유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민예술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명실공히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성장

- ‘시민이 기획하고 창조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와 문화공헌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
- 국가적인 인지도를 근거로 전국적인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
- 사랑방클럽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통화 확대 및 공간 확보 등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 한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프로젝트북은 2006년 12월 출간된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이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13권이 검색되는바, 이 문헌들에서 제시된 우리동네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항목은 위에서 정리한 사랑방 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성과 항목과 대부분 중첩된다고 볼 수 있음.

<표 4-5>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북 목록

번호	제목	출간일
1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북	2006.12
2	풀장환상	2008.2
3	콩닥콩닥 예술공단	2008.2
4	예사로운 만남-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2009.2
5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2009.1
6	2009 프로젝트북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2010.2
7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원다방2'	2010.2
8	풀장환상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프로젝트북	2010.2
9	2010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젝트 북 - 사랑마루2	2011.2
10	2010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젝트 북 - 섬말사랑방	2011.2
11	2010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젝트 북 - 원다방 3	2011.2
12	2011 우리동네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북 - 섬말사랑방2	2012.2
13	2011 우리동네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북 - 사랑마루3	2012.2

○ 문화예술을 매개로 아래로부터의,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선
도적 사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한 마디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 주민들이 주체이자 생산자가 되어 함께 공유할 지역문화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민 주체를 내세우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주민들은 내 생활권 내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기는 갖가지 이슈를 주민 입장에서 두루두루 살펴며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해결사이자 전문가이다.

○ 성남시 각 지역의 힐링캠프로서 주민의 일상 및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문화예술로
치유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

문화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체이자 생산자가 되어, 함께 공유하는 지역문화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이다. 아이들은 동네를 누비면서 나무와 풀을 배우고, 주부들은 어릴 적 꿈꿔온 기타를 치며 무대에 나가 공연을 한다. 또 그림을 배우면서 예술과 역사, 신화까지 관심을 갖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동네스타DJ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준다. 처음엔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함께 모였지만, 참여가 거듭될수록 이웃과 친해지고 더불어 사는 재미를 알게 된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공동체에 대한 멤버십이 생긴다.

지난 ‘풀장환상’의 3년간[2007-2009] 프로젝트는 지역 아파트와 인근주민들에게 신선한 만남이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나의 삶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웃을 이어주는 소통의 계기였다. 주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갖게 했다.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에 대한 희망을 찾게 했다.

○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주민예술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성남시의 새
로운 활동으로 주목을 받음.

올 한해[2010]에도 상대원 원다방은 성남시의 크고 작은 여러 시장 가운데서도 중앙과 지역언론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지역 재래시장의 라디오방송국 설립에 관한 문의 및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전국적인 명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상대원 라디오 방송국을 이끌어 왔던 장미라 DJ국장님을 비롯한 12명의 DJ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위의 원다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동네’ 사업은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지역 및 중앙 언론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사랑방문화클럽의 사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수상을 통해

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거나 이를 통해서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음.

- ‘시민이 기획하고 창조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 1단계에서는 5개의 유형으로 마을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단위 또는 상가의 운영위원회 구축 및 각 운영위원회와 성남문화재단의 관계 설정 등 기본적인 시스템과 원칙을 마련함.
 - 2단계에 들어서는 시 전역으로 확산될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허브 또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작가와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를 설립하여 각 동네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를 지원함.
 - ‘사랑마루’의 주요 역할은 ‘7개 동네에 4명의 팀장을 동네별로 배치하여 주민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동네별 네트워크를 맺고 교류하는’ 것이었으며, ‘동네별 사랑방을 꾸리는데 예산과 프로그램 기획, 강사, 행정 등 다방면으로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 또한 ‘동네 안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며 주민, 문화재단, 행정,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음.

- 성남시의 마을만들기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 및 사업연차에 따라 특화된 접근법을 구성하고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여 동네만들기의 노하우를 축적.

2006년 태평4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올해[2011]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7개 동으로 확대 진행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정자동의 ‘정든사랑방’, 판교 신도시의 ‘붓들문화사랑방’, 다문화 커뮤니티로서 수진동, 상대원시장의 ‘신나는라디오방송국 원다방’, 3년 차 도촌동의 ‘섬말사랑방’,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으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된 은행동의 ‘폴장환상’과 태평동의 ‘한울신문’까지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사업은 질적,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다.

- 2011년 사업에서 ①삼평동 붓들문화사랑방의 목표는 ‘핵심주체 발굴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이었고, ②도촌동 섬말사랑방은 ‘섬말사랑방의 주체적인 자립’이었으며, ③정자동 정든사랑방은 ‘운영주체 발굴’이었고, ④상대원시장 신나는라디오방송국 원다방은 운영주체 및 재정 안정화였으며, ⑤수진동과 함께하는 문화이야기는 ‘지역 내 문화향유’를 목표로 삼았고, 2006년부터 진행된 ⑥‘태평동 한울신문’ 프로젝트와 2007년부터 진행된 ⑦‘은행동 폴장환상’ 프로젝트는 ‘지역 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아서 활동했음.
- 이처럼 차별적인 목표 아래서 각 동네의 운영진들은 동네의 현실 및 가용 자

원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였음.

- 사랑방문화클럽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으나, 마을별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이를 통해서 공간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등 지역문화자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었고, 시차원에서 통합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음.
- 7개 동네에서 형성된 다양한 유형, 다양한 단계의 문화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네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바, ①삼평동 붓들문화사랑방은 ‘주민센터 및 학교, 지역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사업을 실행했고, ②상대원시장 원다방은 ‘시장 상인회’와, ③은행동 풀장환상은 ‘부녀회’와, ④도촌동과 ⑤수진동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행했으며, ⑥태평동 한울신문은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로, 마지막으로 ⑦정자동 정든사랑방은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로 사업을 실행함.

[2012년 2월 현재] ‘통합형 마을만들기’를 위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성남의체 21 실천협의회, 성남시청,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며 통합형 마을만들기의 정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문 영역, 분야, 장르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은 생활, 문화예술, 행정, 시민, 사회 등 지역 전반이 소통되고 연결망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의 프로젝트북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2단계의 주요 성과는 옆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음.



<그림 4-2>
2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

4.2. 외부 보고서 및 언론기사 분석

1) 전문가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외부 평가의 경우,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남문화재단이 생활예술 진흥을 위해 실행해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며, 대부분 국내 생활예술 정책의 형성 및 확산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하는 내용에 집중되고 있음.
- ‘국내에서 생활예술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알려지면 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강운주 외, 2012: 8)나 ‘사랑방 문화클럽은 무엇보다 지역 문화역량 강화라고 하는 문화정책의 오래된 과제가 어떻게 풀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평가(김세훈, 2011: 301) 등이 대표적임.
-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검색 결과, 아직까지 생활예술이나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²⁾ 문화동호회나 문화여가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한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성과에 관해서 비록 단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분석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음.
-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들에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앞서 내부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과 항목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2) 2013년 8월 현재, 안전행정부(국립중앙도서관)가 관리하는 정책연구관리포털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www.prism.go.kr)에서 ‘생활예술’을 검색하면 정부-용역과제로 수행된 4건의 연구 보고서, 유관정책연구 기관의 1건의 보고서가 검색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비롯하여, 지역 정책연구 기관, 민간 정책연구 기관에서는 0건의 자료가 검색됨. 위의 5건 중에서도 정확하게 ‘생활예술’과 관련한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의 계획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실행한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뿐이며, 나머지는 남북문화교류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도시 육성방안,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생활예술 관련 부분이 아주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PRISM에서 ‘성남문화재단’으로 검색할 경우 2건이 검색되는데 이는 지역문화지표에 관한 연구와 문화예술생태계에 관한 연구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한편 대표적인 학술 논문 서비스 사이트인 RISS(www.riss.or.kr)나 KISS(www.kiss.kstudy.com)에서 ‘성남문화재단’을 검색해도 학술논문은 각각 3개와 0개가 검색되며, 앞의 3건 중에서 이현식(2011)을 제외하면 재단 직원에 의해서 사업초기에 발간된 문헌이란 점에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정리해볼 수 있음.

<표 4-6> 성남 생활예술 정책에 대한 외부연구자들의 평가

부문	성과	논문 및 보고서
계획	-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이현식, 2012; 박소현외, 2012; 전수환, 2009; 김세훈, 2011; 강윤주외, 2012; 조현성외, 2012; 오세형, 2010; 민예총, 2007
	- 철저한 과학적 연구에 입각한 사업 기획	김세훈, 2011; 전수환, 2009; 민인철, 2013; 민예총, 2007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	강윤주외, 2012; 전수환, 2009
집행	-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김세훈, 2011; 조현성외, 2012; 윤소영외, 2009; 민예총, 2007
	- 세부 사업 구성의 다양성과 실험성	N/A
	-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박소현외, 2012; 김세훈, 2011; 민인철, 2013; 오세형, 2010
	-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전수환, 2009; 강윤주외, 2012
결과	-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박소현외, 2012; 김세훈, 2011; 조현성외, 2012; 윤소영외, 2009
	-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생활예술 정책 확산	김세훈, 2011; 조현성외, 2012; 강윤주외, 2012
	-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부상	전수환, 2009

○ 우선 계획 부문에서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라는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기초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지역공동체 형성, 착한 예술의 확산 등을 통해 실제로 달성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라는 성과와 연결되지만, 좀더 미시적인 차원의 성과 항목을 외부 문헌분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안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라고 요약될 수 있음.

— 즉 사랑방문화클럽을 포함한 성남 생활예술 사업은 아래로부터의 문화정책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지역 문화정책으로서 문화순회 사업이나 지역문화단체 창작지원이 기대한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지역 예술활동을 공공지원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문화클럽의 자생성과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 지원을

통해 ‘공공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동력으로 효과적으로 견인해낸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김세훈, 2011).

- 집행 부문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문화클럽에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와 자율의 훈련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육성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의를 끄집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협치 모델의 성공적인 운영 뒤에는 (일반적인 지역문화재단과는 다른) 성남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있었다는 지적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의 교체가 빈번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독립적인 연구 및 기획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담당인력이 오랫동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한 점, 또한 재단 직원들이 손쉬운 공모와 심사 형식의 ‘행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직접 발로 찾아가 클럽을 발굴하고 클럽 회원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간 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비결이었다는 평가임(김세훈, 2011).
-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성과 역시 정책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예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 가용한 자원들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 곧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조현성, 2012)이라는 노력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예컨대, 박소현(2012)은 성남의 ‘문화통화’ 제도에 주목하면서, ‘재능의 일방적인 기부가 아니라 일종의 수평적인 문화예술 재능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므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항시적으로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결과 부문에서 꼭 언급해야 할 사실은 계획 부문에서 설정한 목표가 상당히 ‘충실하게’ 달성되면서 각종 수상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이로서 국내의 관련 정책 사업의 범례로 자리를 잡았다는 내부의 평가가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임.
- 이현식(2009)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의 창조도시 조성노력의 대책집에 자

리하는 사례로서 성남시의 시민주체,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노력을 제시하고 있음.

- 박소현(2012)은 사랑방문화클럽이 ‘관객에 머물렀던 이들이 적극적인 문화예술 제공자로서 활동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재능나눔 모델’을 확산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들이 있음.

- 대부분의 외부 연구는 ‘사랑방문화클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남 생활예술 정책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을 주목하면서 내리는 평가일 수 있음.
- 또한 많은 경우 성남 생활예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유사한 정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고민의 밑거름으로 성남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성남 문화재단의 생활예술사업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현식(2009)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2006년 계획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남 생활예술 비전인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시민 주체성이 창조도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여러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비전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이 주도하고 성남시는 ‘뒤늦게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2) 언론기사 분석

□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 개요 도출을 위해 마지막으로 분석할 대상은 언론기사로서, 2013년 8월 1일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성남문화재단’이란 명칭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총 2,705건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 ‘사랑방’이란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총 408건으로 전체 기사의 15.0%이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란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총 53건으로 전체의 1.9%, ‘문화통화’란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총 34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표 4-7> 연도별 성남 생활예술 사업 관련 기사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사랑방 문화클럽	7	36	21	26	68	65	112	73	408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4	13	6	10	11	4	2	3	53
문화통화	3	6	3	4	4	6	8	0	34

□ 위의 언론 기사들 중에서 먼저 ‘문화통화’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음.

○ 문화통화에 대한 기사의 양은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음.

- － 2009년까지는 ‘문화통화’ 제도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을 갖는 기사들이 꽤 눈에 띄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뉴스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임.
- － 예컨대, 가장 많이 ‘문화통화’란 용어가 등장한 해가 2012년인데 그해 나온 기사 8편이 모두 2012년 11월 7일과 8일에 산출되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2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에 ‘사랑방문화클럽’이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문화통화란 표현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임.

○ 이처럼 문화통화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외부전문가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역문화자원의 지원체계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통화** 및 문화공헌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선도적인 시민문화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신문:2012.11.08)

- － 이와 같은 의도와 취지의 긍정성에 대한 언론사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문화통화의 활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음.

□ 다음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문화통화에

관한 기사와는 달리 ‘사랑방문화클럽’에 관한 기사의 일부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기사거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먼저 연도별 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많은 관련 기사가 산출된 것에 비해, 2011년 이후로 언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2011년까지 활동했던 동네만들기 지원센터가 폐지되고 2012년 이후로는 관련예산이 약 1/5로 줄어들면서 해당 사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된 것과 관계가 있음.

— 예컨대, 2013년에 3건의 기사는 ‘수원문화재단’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성남문화재단의 내용은 사랑방문화클럽에 관한 것이었고, 2012년 기사는 재단 감사에 관한 보도 기사와 과거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구성된 문화예술 동호회(쭈마 세시봉)가 중학교 축제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 이후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으로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동네’ 사업은 2006년 태평4동 ‘동락태평’, 2007년 은행동 ‘풀장 환상’, 2008년 상대원 ‘원다방’ 프로젝트 등 지역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기사들이 지역언론을 통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산출되었음.

— 대부분의 평가는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행사, 동네가꾸기 프로그램 등이 주는 작지만 신선한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최근 도촌동 ‘섬말사랑방’의 경우 운영진의 팀워크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촌동 ‘섬말사랑방’ 프로젝트 운영진들이 직접 카페를 만들고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벼룩시장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 사업도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마을 전반에 걸쳐 스스로 앞장서서 활동하는 헌신성도 보여주는 등 동네 주민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남한산성 성문밖학교에서 동네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캠프가 열렸다. 정자동에서 진행된 사업에 참가한 40대 중반의 한 아버지는 캠프에 참석을 한 뒤 “먹고살기에 바쁘고 매사에 경쟁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쳐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구며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이제서야 문화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투데이, 2011.10.01)

-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사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 애초 ‘5대 사업’이 같은 비중으로 제시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이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대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외부전문가 평가에 대한 고찰에 이어서 언론기사 분석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임.
- 또한 해가 갈수록 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단위의 수상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사업에서는 재단의 권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또한 이를 통해서 중앙일간지들도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이 존재함.
- 2013년 8월 현재 73건의 보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에는 자체 최고기록이었던 112회(2012년)를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기사 제목을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가 사업의 다양한 국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 전체적인 기조도 생활예술 정책의 선도적인 사례로서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재단의 사업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클럽이나 클럽에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8>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관한 주요 기사 목록

기사 제목	출처
<성남 문화클럽 1천여개 뭉친다>	2007.01.21 연합뉴스
함께 꾸린 ‘사랑방’ 문화도시 싹 틔워요	2007.02.01 한겨레
[경기] 문화예술 사랑방, 그 문을 활짝 열다!	2007.04.09 데일리안
[경기]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사랑방 사람들	2007.05.18 데일리안
성남지역 ‘문화단체’ 들이 뚝뚝 뭉쳤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결성, 지역문화 선도	씨엔비뉴스, 2007.05.19
성남아트센터, 사랑방문화클럽 2009 대장정 나서	2009.05.07 머니투데이
세계 시민 예술활동가 한자리...15일 성남서 ‘세계문화클럽포럼’ 개최	2009.09.05 뉴스시스
사랑방문화클럽, 도시계획 국제 세미나에서도 주목	2009.11.30 연합뉴스보도자료
성남문화재단, 2010 문화공헌 사업발표로 4년째 전국모델로 부각	2010.02.09 뉴스시스와이어보도자료
성남 아마추어 음악인 ‘사랑방 오케스트라’ 창단	2010.02.22 아시아뉴스통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2010 문화공헌 프로젝트 출발	2010.04.08 뉴스시스와이어보도자료
성남문화재단이 준비한 [함께 볼자 1000명의 색소폰]	2010.06.26 뉴스컬처
사랑방클럽축제, 1천만원 모금 뇌종양 소녀 전달	2010.09.14 뉴스시스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국무총리상	2010.12.03 성남투데이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선정	2010.12.15 연합뉴스
<착한예술로 공헌..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새출발>	2011.03.04 연합뉴스
미술로 봉사하는 사랑방유니트 단장 안윤환	2011.03.27 기호일보
성남 유일의 요들모임 ‘분당 요들클럽’	2011.04.04 조선일보
익산문화클럽, 성남 문화재단 사랑방 클럽과 MOU 체결	2011.09.09 익산시민뉴스
‘사랑방 문화클럽’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동참-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과 협약 체결	2012.02.27 성남투데이
판교 입주기업 위한 사랑방 정오 콘서트 ‘성황’	2012.05.13 아크로팬
지역 주민과 하나되는 ‘2012 시민문화클럽한마당’ 출발	2012.05.24 아시아뉴스통신
100만 성남시민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나눔의 축제’ [제 6회 사랑방클럽축제에 관한 기사]	2012.10.09 성남투데이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대상	2012.11.07 정책브리핑
선도적 시민문화모델 구현 호평	2012.11.08 경기신문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과 통하라! 성남문화재단 ‘2013 사랑방문화클럽’ 본격 始動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3.02.25
‘사랑방문화클럽’ 정길선 신임 위원장 선출, 본격적 사업 시작	2013.02.26 뉴스투데이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공간’ 오픈	2013.03.25 성남투데이
판교 임직원과 울랄라세션 ‘사랑방스페셜콘서트’	2013.06.19 미디어와이
입주기업 임직원 활력... 공연수준 업그레이드	
중국 문화부 사회문화사 성남문화재단 방문	2013.06.20 매일일보

□ 요컨대, 사랑방문화클럽 기사를 중심으로 관련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평가 개요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자체 문헌 분석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검토함으로써 도출한 성과 항목과 구별되는 새로운 항목이 도출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외부 연구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세부 사업 구성의 다양성과 실험성’,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부상’ 등의 성과 항목에 관해서 언론보도는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관해서 자세한 파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

－ 예컨대, 익산 문화클럽과 사랑방문화클럽의 MOU에 관한 2011년 9월 기사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 지역 문화재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 잘 담겨있음.

김원겸 [익산 문화클럽] 운영위원장은 “성남의 사례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익산문화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최연란 운영위원은 “성남이 도시의 인프라적면에서는 익산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익산도 성남 이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익산문화클럽을 위해 더욱 많은 열정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재단 이명준 상임이사는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과 MOU 체결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문화클럽이 되고, 전국 최우수 문화클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포부를 밝혔다.

- 2013년 6월, 중국문화부 관계자가 우리나라 문체부의 추천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방문한 내용 역시 ‘국제네트워크’에 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음.

중국 문화부 사회문화사 사장(司長) 등 일행이 한국의 지역문화서비스전달체계 조사를 위해 19일 성남아트센터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 문화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프로그램을 추천해 이뤄졌다. ... 우군(于群) 중국 문화부 사회문화사 사장은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성과 및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사례를 소개 받고 “향후 베이징 시민문화클럽과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상호교류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3. 소결

- 이번 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문헌, 즉 내부 연구보고서/사업계획서와 프로젝트북,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논문/보고서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도출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개요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4-9> 문헌분석에서 도출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부문	성과
계획	-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 대안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
	- 철저한 과학적 연구에 입각한 사업 기획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
집행	- 사업의 내발성을 담보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운용
	- 진행과정에서 구성된 사업의 다양성과 실험성
	-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결과	-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생활예술 정책 확산
	-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부상

- 내부 문헌 분석과 외부 문헌 분석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대안적인 정책모델을 계획한 점, 그에 걸맞은 추진체계와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이 모델을 충실하게 집행한 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점 등 정책 행위의 제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파악하게 됨.

- 이를 통해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은 전국적 모범사례로서 생활예술 사업 확산의 발신기지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우 미흡했던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애초에 기대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가 가능함.

- 그러나 외부전문가의 평가나 언론기사에 의한 평가는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은 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5. 평가Ⅱ: 인터뷰를 통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 4장이 다양한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개요를 파악해보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5장은 현장조사(field work)를 통해서 재단 직원들과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문헌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앞서 다룬 문헌들은 주로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평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이슈나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성과 평가의 자료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장은 『포지셔닝』(2010) 연구를 통해서 2단계 사업에서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한 전·현직 재단 직원, 시민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인 층위에서 파악해보고자 했음.
- 심층면접은 2013년 8월 8일에서 8월 14일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전·현직 재단 직원 10명과 시민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분석함.
 - 이외에도 성남문화재단이 2단계 사업 전반을 반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2013년 상반기 대화모임 중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에 대한 집단면접의 녹취록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프로젝트북에서 시민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기도 했음.
 - 본 연구진이 행한 인터뷰에서는 가감 없는 평가를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익명을 보장하였으며,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서 2013년 대화모임의 출처도 실명으로는 표기하지 않을 것임.

5.1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

1) 주요 성과

□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목에 집중되었는데,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

○ 자아실현의 장 제공(사랑방 단계): 가정주부로서 “베란다녀”(베란다에서 아이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의 생활을 하던 회원이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미술 동아리를 이끌면서 환우들과 군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갖게 된 경우, 또는 은퇴 이후 “무료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보내던 회원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잡고 새로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을 만나게 됨.

— “남들보다 난 더 오래 달렸지. 일흔 두 살까지 일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달렸나 싶게 맥이 풀려. ... 아,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왔구나, 생각됐어. 그러자 행복해졌어. 먹먹했던 가슴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 일흔 두 살 노인네 받아줄까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더라구. 며느리 또래의 회원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점점 편해졌어. 그림이 사람을 이어주니까. 사랑방에서는 계급장이 없잖아.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 (2009 프로젝트북)

○ 개인간, 클럽간 관계망의 확장(사랑마루 단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참여한 클럽 회원들은 필수적으로 다른 클럽과 연계하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성남시 내에, 작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의미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었음.

— “전에는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작업을 하는 데에 만족을 했지만 사랑방클럽이 된 이후에는 다른 클럽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클럽의 현주소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내 자신이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기분이랄까요? ...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보다 사랑방 클럽활동을 하는 3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 예전에는 기껏해야 집안일이잖아요. 활동 범위가 좁았

죠. 그런데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위치를 설정하게 된 거죠.” (2009 프로젝트북)

- “관심사가 비슷하면 쉽게 친해집니다. 클럽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요. 사랑방문화클럽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2009 프로젝트북)
- “사람들과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아들한테도 엄마 몇 명 정도는 모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 지금도 지나왔던, 같이 활동했던 클럽들이 전화안부 주고받을 때 어제 같이 했던 사람들처럼 너무 좋다. 지금도 다른 클럽 뒤돌아볼 때 참여하기도 한다. ‘인간적으로 함께 했을 때 참 좋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전 운영위원, 08.14.)

○ 문화공헌 및 사랑방축제를 통해 공동체 형성에 기여(사랑마당 단계): 여러 클럽이 모여서 구성한 팀별 공헌활동(공연,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소외된 곳을 밝히는 자원봉사/재능기부를 추진해왔으며, 모든 클럽들이 준비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매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사랑방축제를 통해 클럽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고 성남시민들이 흥겹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잔치를 벌임.

- “초기에 재단에서 동아리 공모를 했다. 공모 지원을 해서 클럽이 괜찮으면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우리는 매우 순수했다. 모여서 그림 그리고, 자비로 일 년에 한 번씩 전시했다. 들어와 보니까 서류가 복잡스러웠다. 재단 측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묻자, 공적인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고 회원 중에 한 명이 봉사를 하자고 했다. 수도병원에 환우들에게 그림 가르쳐주는 봉사, 군인들에게 그림 가르쳐주는 봉사를 했다.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해서 가르치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씩.” (전 운영위원, 0814)
- “처음에는 돈도 없고, 기획력도 없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1장짜리 팜플렛을 만들지 못해서 아주 곤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몇 월 몇 일이면 꼭 그 자리에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이라는 인식을 시키자. 그렇게, 두해 세 해 하다 보니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구요” (2009 프로젝트북)

□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참여자들이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 모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으며,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의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성남시 ‘공공기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임.

○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 모델

-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문화활동’이라는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기대는 컸다고 본다. 관에서 아마추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 클럽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우리활동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본다.” (2대 위원장, 0530)
-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시작과 파장은 잘 되었다. 그러나 발아와 토양도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대 위원장, 0530)

○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 “자발적으로, 시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즉 시민 주체가 만들어지도록 했고 행정이나 재단에서는 서포트를 해주고자 했다. 동아리가 자기만족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네트워크를 이루어 교류하고,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동네 사업, 지원 사업, 문화통화 사업 등을 총괄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정책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이끌어왔다.” (현 재단 직원, 0808)
- “해마다 많은 변화를 줬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준 것은 드물 것이다. 첫째 38개 클럽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때는 클럽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보조해줬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었다. ... [다음 해에는 팀 제도를 도입했는데] 팀장의 역량에 따라서 장르가 하나로만 이루어지거나 복합장르 클럽이 되거나 했다. 최대 1,200만원을 팀장이 맡아서 일을 했다. 팀장은 1년, 잘하면 2년 했다. 그때 팀장들은 상 줄 만큼 열심히 했다. [그해 평가에서] 서류처리가 복잡하다고 불만이 나와서 팀장이 기획과 교류를 할 테니, 재단에서 행정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행정을 재단에 맡겼다. ... [이처럼 초기에는] 서로가 겹쳐져 있어서, 재단과 클럽 운영위원, 클럽지기들이 구별이 안됐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내일 네일 구분이 없었다.”(전 운영위원, 0814)
- “운영위원이 작년까지는 9명이었는데, 큰 규모의 축제 등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 운영위원이 많으면 사랑방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해부터 19명으로 늘어났다. 운영위원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좋다. 여러 방법들이 생기고 풍성해져서 좋아졌다.” (현 운영위원, 0814)

○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역할 인정 및 이를 통한 ‘공공기

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 제고’

- “자연스러웠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했으면 못했을 텐데, 스펀지처럼 흡수됐던 것 같다.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았다. 재단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편했고 그 부분에서 재단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성남시 공공기관을 친밀하게 느꼈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만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 만남이 굉장히 딱딱한 편인데 말이다.” (전 운영위원, 0814)

□ 이상의 핵심적인 성과 외에도, 앞서 문헌분석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성과들, 곧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생활 예술 정책 확산’,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부상’ 등이 재단 관계자와 시민 참여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운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효과들이 도출된 메커니즘을 개략적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음.

- ①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 “옛날에는 성남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쫓겨 왔다는 피해의식에, 궁핍한 생활에,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죠. 다 들어 먹고 막다른 길에서 성남으로 왔으니까.”(2009 사랑방 프로젝트북)
- ② 사랑방이라는 훌륭한 놀이터의 등장: “사랑방은 놀 수 있는 너무 좋은 터이다. 좋아서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가족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전 운영위원, 0814)
- ③ 이 놀이터의 주인이 되면서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성장: “개인적으로 스케일이 커졌다. 사랑방의 규모가 커진 것처럼, 나도 자연스럽게 넓어진 것이다.” & “얼마나 보람된 활동인지 [모른다.] 경력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전 & 현 운영위원, 0814)
- ④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일련의 수상으로 널리 인정을 받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됨: 2010 ‘민관협력 우수사례’ 대상(국무총리상), 2012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 대상 등의 성과와 익산, 화성, 광주(전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들에 사업 노하우 전수 등.
- ⑤ 이로 인해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유치하면서 사랑방 전용 공간을 비롯한 사업의 지원체계 내실화: “가장 큰 성과는 공간 세 곳이다. 순수 아마추어를 위해서 공적 재단에서 제공해주는 공간. 양상블 시어터, 시민회관, 큐브. (올해부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큰 성과인 것 같다.” (현 운영위원, 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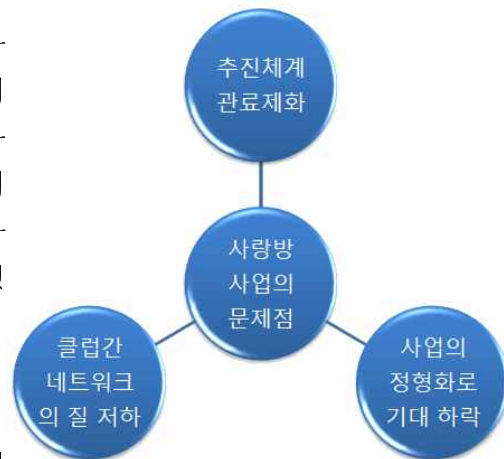
- ⑥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확산 및 이를 통한 공동체의식과 지역정체성 제고

2) 주요 문제점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클럽의 수는 “150개에서 180개로, 200개로” 늘어나서 2013년 현재 209개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양적 확장을 경험해 왔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질적인 성장 역시 이루어왔음.

-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술 사업 2단계가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재단 직원과 클럽 운영위원들은 사랑방문화클럽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
-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재미/기대 하락
-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 저하



<그림 5-1> ‘사랑방’ 사업의 문제점

-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

- 생활예술 사업 2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행정적인 역할을 문화재단에 넘겨준 이후 재단과 클럽이 너와 나의 구분 없이 하나로 일했던 초기와는 다르게, 서로의 업무를 행정과 기획 등으로 구분하면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2009년부터 행정이 나뉘지면서, 벌써 껍이 생겼다. 지원이 아니라 감독이 되어버린 것이다. ... 행정을 넘기고 나니, 재단에서는 행정만 담당하는 것이니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안되기 시작했다. 클럽 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활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의 제한이 많아졌다.” (전 운영위원, 0814)
- “처음에 팀장이 행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재단에 맡길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행정 부분을 맡기고 나니까 기획력이 떨어졌다. 행정 부분이 떨

어저 나가니까, 세세하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약간 방관하게 되었다. ... 아마추어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약이 많다 보면 할 게 뻔해진다. 그렇다보니 계속 예전에 있었던 형태를 반복하게 된 면이 있다. ... 말 그대로 처음처럼, 가족처럼, 스스럼없이 만나서 자발적으로 공연하고... 재단에서 만들라고 하기 전에 만들어서 과감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적극적인 면이 없어졌다.” (현 운영위원, 0814)

- “현 상태는 재단과 사랑방의 관계에서는 재단에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재정적 자립과 행정적 자립이 가능할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재단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자립성을 키워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대 위원장, 0530)
- “이전에는 클럽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모아놓고 보니까 물에 의해서만 움직이려하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존성이 높아진 것이다.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수립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단계별 계획이 잘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적극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 이유를 재단이 조사하여 밝히고 그것에 따라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정해진 과정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2대 위원장, 0530)

□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재미와 기대 하락:

- 재단이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 주어진 ‘업무’를 나누어 실행하는 구도가 굳어지자 네트워크 활동이나 문화공헌 활동 등이 일종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실험보다는 관행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클럽의 입장에서 “식상함”을 느끼고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기존 활동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워크숍, 총회 등 관행적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는 곧 전시성 성과 중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랑방이 자발적으로 예산 부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초대 운영위원장, 0530)
- “사랑방문화클럽이 어떠한 사업의 결과 위주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사업의 결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과 구도와 사랑방문화클럽들의 사고에서는 영원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2대 위원장, 0530)

- “초기에는 문화공헌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축제는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축제가 하나의 일이 됐다. 처음에는 일주일간 공연을 열심히 했는데, 7일에서 5일, 3일 등으로 축제 기간이 짧아졌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 년간 열심히 문화공헌하고, 축제는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보여주는 축제가 되기 시작하다보니까 관객 자리 찬 것에 좋아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 운영위원, 0814)
- “초창기 3년간 잘 되다가 침체기에 부딪혀서 2011년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내부 반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비전과 목표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의 각 단위들, 즉,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각 클럽, 회원들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았나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이 너무 ‘기술적’이지 않았나 싶다. 기술적 실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동하던 사람이 빠지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단절이 있었던 것 같다.” (3-6대 실행위원, 0530)

□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 저하

-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추진체계가 관료제화하고, 그에 따라 초기의 가슴 벅찼던 활동들이 정형화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동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예술, 생활예술 공동체로서 사랑방의 정신이 훼손되고, 오래된 클럽들과 신생 클럽, 실력이 뛰어난 클럽과 그렇지 못한 클럽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음.
- “일단은 회의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화공헌을 위한 한마당 프로젝트의 경우] 며칠에, 몇 분짜리 공연을 준비해서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만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얼굴이 익혀져야 뉘풀이도 하게 된다. 클럽 지기끼리라도, 팀장들이라도 자주 만나 회의를 해야 한다. 형식을 바꿔서 [클럽간의] 협주 같은 것을 해야 한다.” (현 운영위원, 0814)
- “오페라장이나 앙상블 씨어터 등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사랑방이 자꾸만 프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슈화되기를 쫓아가는 것 같다. 공연하는 걸 보니 다들 잘하는 클럽들 내지는 찬조출연이다. 못하는 클럽들도 세워주면 좋은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팀들 위주이다. ... 사랑방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는 영원한 아마추어쉽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디나 사람들이 모이면 1, 2, 3, 등수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방은 일등부터

꿀등까지 두루두루 모두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사랑방의 문턱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 운영위원, 0814)

- “팀 꾸리는 것이 자율화되면서 나이가 많거나 수준이 낮은 클럽들은 소외된다. 끌어주는 클럽이 있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자유롭게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팀을 짜라고 하면서, 자유가 방종이 되는 측면이 있다.” & “클럽을 저마다 만들기는 하지만, 팀을 꾸릴 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클럽들 위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다.” (전 & 현 운영위원, 0814)
- “초기에는 개인적 관계형성이 있었던 것 같다. 2010년 이후 참여하신 분들은 업무적으로만 관계한다. 사적으로 연락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 2년 전부터는 위원회끼리도, 위원회와 재단 사이에서도 사적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듯하다.” (재단직원2, 0808)

□ 이상을 종합하자면, 재단 직원 및 클럽 핵심 운영진들은 사랑방문화클럽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사업이 ‘초기’의 정신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났던 긍정적인 성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관료제의 폐해와 사업의 정형화, 클럽간 네트워크의 질적 하락 등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앞 장에서 내부와 외부문헌을 통해 분석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며, 향후 사랑방문화클럽 관련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5.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1) 주요 성과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경우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가장 주목한 성과가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라는 항목에 집중되었듯이,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도 ①사랑방 단계(열악한 환경의 동네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 - ②사랑마루 단계(지역 단위 내외로 관계망의 확장) - ③사랑마당 단계(사랑방클럽 등과 연계된 지역 문화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를 설정하여 주민들이 자아실현에서 시작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이로써 지역 및 도시 전체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음.

○ 열악한 환경의 동네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사랑방 단계): 현재까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사업이 진행된 곳은 문화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았는데, 열심히 참여하는 주민들의 핵심적인 동기부여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음.

—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 후반의 젊은 주민들이다. 로컬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이 힘든데 왜 오시냐고 물은 적이 있다. 삶의 만족, 먹고 싶어서 하는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많은데, 그런 부분 외에 내가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함께 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 (주민 2, 0813)

— “제일 큰 것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 매체교육 등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매체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한지공예 등은 배울 기회가 없으니 좋아서 온다. ... 은행동은 30년이 넘은 동네라 서로 얼굴들은 안다. 개인의 요구가 큰데, 소수지만 공동의 것을 키우려는 욕구가 있다.” (전 활동가, 현 재단 직원7, 0813)

○ 지역 단위 내외로 관계망의 확장(사랑마루 단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은 다른 클럽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인 및 클럽의 관계망을 확장하고자 했다면, 우리동네 사업은 우선 지역 단위 내에서 ‘문화를 매개로’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하고, (2단계에 세워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라는 허브를 경유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온 여러 지역 단위들 간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장하고자 했음.

- “육아 등은 일이다. 문화가 들어오면 힐링의 개념으로 바뀐다.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애 보고, 애 잡고,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이 아닌 힐링이라는 느낌으로 받는다. 만족감을 받는다. 도서관 만들면서, 공간만 꾸려지면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지만 그건 착오였다. 그 곳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가 역할을 한다.”(주민1, 0813)
- “문화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본다. 육아프로그램에 문화가 함께 하는 등 병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가 매개체로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문화가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동반자로 본다.” (주민2, 0813)
- “문화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서로 모일 일이 별로 없고,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된다. 마을 안에서 이익으로 외에는 모일 기회가 거의 없다. 문화를 매개체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3, 0813)
- “1단계는 크게 별렀다면, 2단계는 첫 해에 초동주체를 잡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 주체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 1단계는 마을만들기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라면, 2단계부터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매개자들이 실질적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2011년에는 지원센터가 있었다. 성남시 전체를 포괄할 그림을 그렸다. 지원센터는 복합적으로 가게 하려고 했다.” (재단직원7, 0813 & 재단직원5, 0808)

○ 사랑방클럽 등과 연계된 지역 문화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사랑마당 단계):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동네 강좌나 모임에서 갖고 닦은 주민들의 숨씨를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행사나 축제를 열거나, 신문발행이나 라디오방송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공헌.

- “클럽 활동은 매체 중심이다. 매체 수준 차이가 컸다. 사랑방문화클럽과 동네 사랑방 수준 차이가 컸다. 사랑방문화클럽이 동네 사랑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해서 사랑마루[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 도촌동 할 때도, 상대원할 때도 사랑방문화클럽에서 많이 와서 해주셨다.” (재단직원7, 0813)
-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성남아트센터에서 동네 만들기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나무목걸이 체험과 춤, 기타연주와 영상놀이 등을 하였다. 이 행사는 동네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7개 동네에서 전개된 프로

그램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태평동, 은행동, 도촌동, 삼평동, 정자동, 상대원과 수진동에서 약 100여명 정도의 참가자가 왔다. 이 행사 마지막에 경품추첨을 하였는데 추첨이 된 사람은 ‘삼총사’ 뮤지컬 티켓을 받게 되었다. 나는 ‘삼총사’ 뮤지컬 티켓을 받지 못하여 속상하고 이곳에서 멋진 공연을 보아서 즐겁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동네만들기 페스티벌에 전시된 한울신문이 가장 기억에 남고 도촌동 가족사진방에서 한 수화공연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동네만들기 페스티벌은 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태평동 한울신문 기자 이나라 어린이 취재기사, 2011 사랑마루 프로젝트북)



- 이처럼 자아실현-네트워크 형성-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활예술의 핵심적인 논리에 따라, 각 단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기획과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외에 <표 4-9>에서 정리한 성과들 중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특별히 주목한 ‘우리동네’ 사업의 성과는 주민주도의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마을만들기이자, 사랑방문화클럽과 결합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시도 등), 이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성남시와 경기도 등으로 확산시킨 것 등임.

○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것도 그간의 성과이다. 마을만들기의 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 분들이 ‘마을의 귀환’을 얘기한다. 성남문화재단에서 했던 것이 기반이 되고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민2, 0813)

- “3단계 15년을 해보자고 한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이게 고민이었고 걱정이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마을만들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 모형을 보여줬다. 마을만들기 하나만 있다면 별 의미 없다. 다른 곳에도 그런 것은 있다. ‘사랑방’이 있으면서 ‘우리동네’까지 양 축의 모델이 보여졌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본다]. ... 주체들[시민들과 주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을 정립하게 한 것이다.” (전 재단직원, 0814).

○ 진행과정에서 구성된 사업의 다양성과 실험성 및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충실하게 자료로 기록’

-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쭉 봤다. ... 찾아보면 성남 문화재단에서 했던 마을만들기가 참 많고, 많이 배웠다. 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주민1, 0813)
-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매년 사업별로 나오는 프로젝트북과 이야기북 7세트이다. 동네별로 모두 책이 있다.” (재단직원6, 0808)
- “처음에 재단이 생활예술 사업을 시작할 때 2개의 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15-20년 동안 하겠다는 것, 다음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안착할 것인지를, 시행착오를 모두 기록해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년 프로젝트북이 나왔는데, 이게 점차로 관공서에, 그리고 모든 문화관계자에 퍼졌다. 한 3년 지나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들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다.” (전 재단직원, 0814)

○ 생활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정책 확산

- “문화재단에서 초기에 곡절을 겪으면 진행되어오던 사업들이 하나의 샘플이 되었다. 재단에서 토론회나 포럼 등 몇 차례, 여러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알리며 홍보했다고 본다.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교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마을만들기 조례까지 만들고 확산하는 것에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시에서는 마을만들기조례까지 만들어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재단 문화사업부장, 0607).
- “현재 동네 커뮤니티 아트 지원사업은 모두 생활예술에 들어간다.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에 [기금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나눠주는 행사성 사업을 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재단에게 그 사업에는 문제가 있으니, 동네 커뮤니티 아트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매칭을 해보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 해보라고 했고, 성남에서 사업한 것을 보고 지원사업이 이렇게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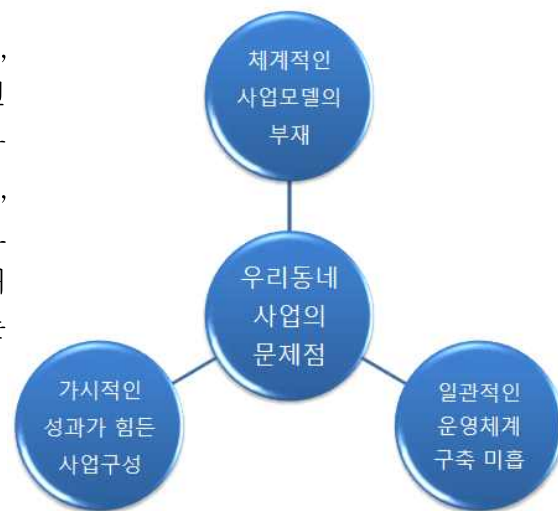
게 맞다고 해서, 2012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가 내려왔다.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이 광역단체의 사업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 우리동네 사업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하면서 관계 맺었던 예술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우리동네공동체 사업의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재단직원5, 0808).

2) 주요 문제점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앞서 살펴본 인터뷰 내용과 2단계 사업의 최종 기획서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셔닝』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나듯이,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위상 속에서 ‘우리동네’ 사업은 재단의 집중적인 관심과 예산을 통해 총 7개 동네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함께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동네별 주민자치 모임 및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 단계에 입각한 ‘주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등 핵심적인 성과를 생활예술 정책의 확산을 이끌어왔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운영되었던 ‘동네만들기 지원센터’가 시의회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파국을 맞으면서, 현재는 정점 대비 약 1/5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5-2>

‘우리동네’ 사업의 문제점

○ 생활예술 사업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여 ‘우리동네’ 사업에 참여한 재단 직원, 작가, 활동가/매개자, 참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이 이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체계적인 사업모델의 부재
-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구성

□ 체계적인 (상향식) 사업모델의 부재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경우,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1000여개가 넘게 파악된 상태에서, 이들 클럽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들 스스로 운영체계를 만들어 사회공헌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분명하고(clear) 실현가능한(feasible) 사업모델이 있었음.

- 반면에 우리동네 사업의 경우, 1단계에서 5가지 유형을 나누는 식의 나름대로 섬세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마을 단위로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문화예술 조직(e.g.동호회) 및 리더(i.e. 클럽지기와 같은 매개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없이 ‘주민들의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성만으로 사업이 발족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음.
- 즉,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라는 기획의도는 매우 적절하고 야심찬 것이었으나, 상향식(bottom-up) 정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화된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재단의 하향식(top-down) 기획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주민 수요 및 요구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태평동”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유형별 노하우 축적이란 명분 아래 충분한 이해 없이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사업 목적이 공공미술이냐,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이냐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의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 “지역주민들의 지역생활, 세대의 구성, 역사 등을 많이 깊이 들여다보고 각각의 미션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었다고 본다.”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0607)
-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다. ... 공단유형은 규모와 가능성만 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본다. 공단의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거의 없었다. 벽화의 경우, 직원들이 나중에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반론도 있었다. 문화적 감수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당자가 시키니까 하는 짜증나는 일이었다. 보고하고,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일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참여작가1, 0607)

- 성남을 조사하고 다섯 유형으로 분류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2006 태평동이 첫 사업이었다.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평가에 일부 동의한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한 때의 좋은 체험, 경험 정도이고 이로 인해 공동체, 조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 이후의 상가, 공단, 아파트 프로그램도 기대했던 것만큼 문화예술활동이 [공동체를] 나아가게 하기란 역시 어려웠다고 본다. (재단직원2, 0813)

○ 그 결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는 달리) 재단과 주민간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재단이 애초 기대한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으로 확산되는 단계적 사업모델도 분명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적으로 문화로 동네만들기사업은 초기에는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 문화예술로 동네가 ‘으쌔으쌔’하고 마을축제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백 명이 모여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동네가 바뀌지 않는다. 조금은 영향은 미치지만 동네가 바뀌지는 않는다. 동네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을 한다. 문화예술로 마을만들기를 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단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우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단직원7, 0607)
- “올해 처음으로 방향을 업-다운에서 버팀-업으로 바뀌었다. 마을에서 주체가 만들어 진 곳에만 간다. 없는 곳에 억지로 커뮤니티를 만들면 역작용이 있다. 커뮤니티 성격이 맞지 않아도 소통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보고, 취지가 맞지 않다면 그 때 가서 접어도 된다.”(재단 임원, 0607)

□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 이처럼 체계적인 (상향식) 사업모델이 부재했던 까닭에,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상황 및 주민 요구에 따라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제 각각의 운영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성남문화재단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조직들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일관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

지 못하였음.

- 예컨대, 1단계에서는 다섯 개 유형을 정하고 성남 외부 예술가들을 불러서 ‘커뮤니티 아트’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시도하다가, 2단계에는 성남 지역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업 주도권을 넘겨준 사실에서도 재단이 ‘우리동네’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성을 둘러싸고 느끼게 된 부담감이 드러남.

- 따라서 동네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열심히 전개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재단, 주민, 작가, 활동가/매개자) 간의 분명한 역할 규정 없이 과도한 업무나 중복된 책무에 시달리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기반다지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
- “태평동의 경우 ‘프리즘’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지역작가들과 몇 번의 충돌이 있었다. 외부작가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떠난다. 당시 사업 목적이 공공미술이냐,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사업평가하면서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으로 합의한 것 같다. 은행동에서 사업은 사랑방과 연계한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부작가와 갈등이 있었다. 그 이후 사업에 있어, 상대원시장사업의 경우, 공공미술은 외부작가가,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은 지역작가가 맡아 진행했다. 결국에는 상대원 라디오 프로그램 커뮤니티만 남았다.” (재단직원7, 0813)
- “예술가들에게 미션을 동네 매개자를 조직해달라고 했는데, 예술가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술가들에게 매개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주민조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 무리였다고 본다. 예술가와 매개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미션과 포지션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0607)
- “최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은 ‘주민직접지원사업’을 한다. 커뮤니티 아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역할이 고민이 된다. 재단이 주민을 지원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예술가를 지원하여 지역을 매개토록 하는 역할이냐가 궁금하다. 재단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지역예술가와 재단이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오로지 수요자 중심, 주민 중심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 (참여작가2, 0607)
- “작가들은 예술적 고집도 있고, 일반인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성격도 있고, 지역공헌이라는 사명감도 사업을 통해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여작가1, 0607)
-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지 못했다. 도촌동의 경우 [활동가들이]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시도했으나 마을사업과 결합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매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단 문화사업부장, 0607)

- 그 결과, ‘우리동네’ 사업의 주축이 된 부녀회와 해당 동네의 다른 주민 조직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서 부녀회가 해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단 측의 효과적인 중재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네별 구심점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게 됨.
- “재단이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향식 방식으로 초기에 진행하다보니 주민의 요구 파악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한다. ... 문화공동체로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재단에서 어떻게 중재할지도 고민된다.” (재단직원2, 0813)
- “은행동은 풍물에서 적극적인 아주머니 4명 정도가 꾸려졌다. 그 중 두 분은 이미 미디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분들 중 한 분이 분당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마을 만들기를 할 때 그 동네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자녀 교육환경 문제로 이사 간 것을 보고,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다. 두 번째는 재개발 관련해서, 떠나지 않는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을만들기가 문화예술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때 생각하게 됐다.”(재단직원7, 0813)

□ 가시적인 성과가 어려운 사업구성

-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단, 주민, 작가, 활동가 등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추구한 바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사실임.
- 크게 두 가지 제약에 입이 모아지는 바, 첫째는 ‘문화만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단기적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깨달음은 향후 ‘우리동네’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기획할 때 의미심장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동네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따라서 사업의 총체적인 리모델링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점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임.

-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로서,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만남을 촉진하는 윤회유 또는 힐링의 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예술’이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관심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음.
- “우리는 그동안 마을사업을 해왔는데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본다. 그래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아닌 주민 생활과 관계된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사례를 보니 이러한 접근이 성과가 있다고 본다.” (참여작가2)
- “주민의 입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목표였다. 문화예술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복지, 환경, 교육과 연계해야 하는데 문화 부문으로만 할 수가 없다. 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속 하기가 어렵다. 일본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예산이 중단되면 활동이 끝난다’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마치 돈 넣을 때만 무언가가 진행되는 ‘공중전화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도 크다.” (재단직원2, 0813)
- “우리 표현으로 마을만들기는 통합형 사업이 필요하다. 도로정비, 도시계획까지 모든 것이 마을만들기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마을만들기는 정리해보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전반적으로 [예컨대, 시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문화예술측면에서 보면, 동네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 (재단직원7, 0813)
- 한 재단직원이 언급한 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려진 “벽화의 물감이 희미해”지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듯이 ‘우리동네’ 사업이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에는 단지 ‘통합형’ 사업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장기형’ 사업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우리가 주민들의 의식을 키울 수는 없다.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예술적 면에 치중하여 그들의 삶과 맞닿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시도했다, 처음으로 그들에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보람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재단이나 시의 행정적 처리에서 3년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으면 예산이 끊기고, 결과를 내기 위해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본다.”(지

원센터 코디네이터, 0607).

- “사업 방식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일본의 경우, 60, 70년대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이 사업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마을만들기와는 다른 것이 되었다고 본다.” (재단직원8, 0808)
- “2012년 이후 사업방식의 변화가, 특히 예산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어려운 점이다. 민간에서는 지속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삼평동은 지속가능성이 있었는데 재단 지원이 중단되면서 확대되지 못했다. 재원의 중단에 대한 종합대책이 부족했다고 본다. 중간 매개조직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어렵다.” (참여작가2, 2013 대화모임)
- “마을만들기는 문화예술만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하다보면 만들어질 것이다. 100년을 보자. 재단에서 10년 했지만 크게 변화된 것,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다. [시 차원의] 행정 구조를 마을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 덕분에 단대동은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매년 부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재단의 역할이 줄었는데, 오히려 밖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단직원7, 0813)

□ 요컨대, 재단 직원, 참여작가, 활동가, 주민들은 ‘우리동네’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와 마을만들기 확산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제시한 사업의 다양한 한계점과 문제점은 크게 ‘체계적인 사업모델의 부재’,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구성’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재단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는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성남시의 현실 속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실현가능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사업방식을 고수하겠다면, 동네마다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문화예술 부문 바깥의 복지나 교육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현재의 행정체계 내에서 쉽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방식이기도 함.

- 따라서 향후에도 재단의 주력사업으로 ‘우리동네’ 사업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사업 방식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사업 모델 자체를 좀 더 평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여러 동네에서도 일관적인 형식으로 운영 가능한 추진체계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5.3. 소결

- 이번 장에서는 우선 실질적으로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과의 개인면접 및 집단면접을 통해서 4장에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개요가 실제로도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났는지를 검증해보았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문헌분석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나 ‘우리동네’ 사업 모두 국내 상황에서는 생활예술과 관련한 선구적인 시도로서 계획, 집행, 결과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음.

<표 5-1> 문헌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부문	성과
계획	-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 대안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
	- 철저한 과학적 연구에 입각한 사업 기획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
집행	- 사업의 내발성을 담보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운용
	- 진행과정에서 구성된 사업의 다양성과 실험성
	- 사업 내용, 성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결과	-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 제고
	-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생활예술 정책 확산
	- 정체성이 미흡한 성남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부상

- 문헌분석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성과 항목’이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경우도 있었는데(위의 표 굵은 글씨 참조), 집행 부문에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을 벌

인 후에는 매년 ‘프로젝트북’을 통해서 관련 사업의 내용, 성과, 한계를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것, 그리고 결과 부문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주민들이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 제고’를 경험했다는 사실임.

- 이러한 성과 개요의 검증보다 더욱 주목해야할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문헌분석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생활예술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서, 현재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나 ‘우리동네’ 사업이나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표 5-2> ‘사랑방’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의 문제점 비교

‘사랑방’ 사업의 문제점	‘우리동네’ 사업의 문제점
-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	- 체계적인 사업모델의 부재
-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재미/기대 하락	-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 저하	-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구성

- 먼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은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로 인해서 초기의 역동성과 자발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로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클럽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고,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의 주기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료제화가 발생하고 일종의 매너리즘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 이룩한 성과를 무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동력을 현저하게 떨어트릴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편 ‘우리동네’ 사업은 관료제화나 매너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사업모델의 부재로부터 각종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는 달리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이라는 발전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조직 및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여러 동네에서 적용가능한 일관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내용을 구성함

으로써 동력을 서서히 상실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게다가 현재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과거 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고, 성남시가 향후 마을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모델을 수정하여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됨.

- 결론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은 생활예술 분야에서 매우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구성 및 전개하였으며, 이것이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사업참여자들 역시 이와 같은 성과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성과를 뒤흔들만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음.

6장. 평가 III: 평가지표에 의한 생활예술 사업 평가

- 4장은 문헌분석을 통해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개요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5장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개요를 검증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바, 이번 장에서는 성남 생활예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체계를 설정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보고자 함.

- 우선 평가지표 체계 및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 지표들을 검토할 것임.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책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는바, 매년 문체부와 기재부 등은 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행해왔음.
 - －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평가지표들을 참조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지난 사업 내용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함.

- ‘기획/계획’, ‘집행/관리’, ‘산출/결과’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근거는 4장과 5장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물, 재단이 사업과정에서 축적해온 데이터, 그리고 본 평가를 위해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할 것임.
 - － 설문조사는 ‘산출/결과’ 부문에서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한 시민 및 주민들이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지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는지, 또한 사회통합과 지역정체성 제고 등의 애초에 기획한 사업 목표에 걸맞은 변화를 보였는지를 측정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설문 결과는 1997년에 영국에서 프랑스와 마타라소(François Matarasso)³⁾가 발표한 생활예술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평가해보았음.

3) 현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마타라소는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정책 및 예술경영 분야의 연구자로서 특히 예술의 사회적 효과(social impact)에 관한 획기적인(seminal)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본 설문조사는 그의 저서인 *Use or Ornament?*(1997)에서 1996년과 1997년에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재구성한 것으로, 성남의 생활예술 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그 자체로 평가한 후에 이를 영국의 결과물과 비교해보고자 함.

6.1. 평가지표 체계 및 성과지표 도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 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 평가임.

<표 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부 사업평가별 체크리스트 비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가중치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사업평가부문 평가지표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2012년 지침 미발표)	복권기금평가
계획 (25→20)	사업계획 (15→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2)	1-1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3)	1-2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가?(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5)	
	성과계획 (10→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	
집행/관리 (30→30)	사업관리 적정성 (30→3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15)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15)	2-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자질 없이 집행하였는가?(1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15)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10)	2-2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10)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5)	2-3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는가?(1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성과/환류 (45→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 (45→50)		3-정보화②, 공정거래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2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30)	3-1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2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 하였는가?(10)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10)	3-2 사업 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10)
		4-3. 사업별 특성화지표 설정 평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10)	3-4 평가결과, 외부지적사항 등을 환류하였는가?(10)
		①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지표(5)		3-3 사업실시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보다 향상되었는가?(5)
		②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지표(5)		3-5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5)
계		100	10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50)

- 이상의 지표들을 종합하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평가 시 실제로 활용된 평가지표(e.g.무지개다리사업)를 귀납적으로 참조하여 항목과 배점을 구성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지표 체계’는 아래와 같음.

<표 6-2>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지표 체계(가안)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 결과(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획/ 계획 (25)	사업계획의 타당성 (5/5/5)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구조 및 내용의 합리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성과계획의 적합성 (5/5)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연계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합리성					
집행/ 관리 (30)	집행의 효율성 (10/10)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관리의 적정성 (5/5)	• 성과관리의 체계성					
		• 인식공감의 적극성					
산출/ 결과 (45)	산출의 충실성 (20/5/5)	•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 평가결과(개선과제) 이행 정도					
		• 사업 네트워크 및 지속기반 강화					
	결과의 효과성 (10/5)	•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					
		• 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					

□ 위의 평가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획/계획 부문의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연계성’(5점)과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합리성’(5점) 항목, 그리고 산출/결과 부문의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25점)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활예술사업의 목표와 목적이 실제 사업을 통해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 43개 기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 성과지표 99개를 분석하면, 만족도, 공간가동률, 수상실적, 수혜자수,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 등의 주요 범주가 도출됨.

<표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분류표

지표명	세부 지표명 및 해당 기초사업 개수
만족도	수혜자만족도[기재부 PCSI 조사] (6), 수혜자만족도[자체/외부조사] (9), 고객만족도[외부조사] (7), 이용자만족도[기재부 PCSI 조사] (1), 이용자만족도[자체조사] (1), 공간시설이용자만족도[자체조사] (1), 지원대상만족도[기재부 PCSI 조사] (7), 웹진 구독자 만족도[자체조사] (1), 기부관련행정서비스만족도[기재부 PCSI 조사] 등 총 36개
가동률	집필공간 가동률[ERP 성과보고서] (1), 공간가동률[ERP 성과보고서] (2), 지역공연장 가동률[지자체 제출 성과보고서] (1) 등 총 4개
수상실적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자체] (1), 1인당 수상(초청)실적[ERP 성과보고서] (1) 등 총 2개
수혜자수	문학집배원 수혜자수[홈페이지] (1), 수혜자수[지원사업] (7) 등 총 8개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창작작품수[창작작품수 포함] (13)
평균 관람객수	평균 관람객수(10)
기타	문예지당 우수작품 발굴실적 (1), 평균 발간물 종수 (1), 지원신청 연구자수 (1), 종합평가점수 (1), 누적회원 가입수 (1), 웹사이트 페이지뷰 (1), 전시건당 관객수 (2), 방문자수 (1), 해외창작거점 공간수 (1), 국제교류파생효과 (1), 교류협력국가수 (1), 교류협력국제기구수 (1), 이용자수 (2), 문화콘텐츠보급처수 (1),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책자발간사업 언론보도건수 (1), 위원회 기사건수 (1), 미디어 노출건수 (1),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 (1),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 (1), 기부금유치실적 (1), 기업-예술단체 결연건수 (1), 매칭펀드 기업지원금액 (1), 사업타당성(실효성) 평가점수 (1) 등 총 26개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51)

○ 이 중에서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성과지표는 2가지로, ‘생활문화공동체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 ‘수혜자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과 ‘고객만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수혜자만족도’를 정성적으로 측정한 것임.

- 그러나 생활예술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이 성남문화재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르고,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역사와 경험을 축적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성남문화재단은 이 정도의 성과지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의 99개 성과지표 중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재구성한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할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6-4>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부분	순서	성과지표	측정방식
사업 활성화	①	전체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재단집계(정량)
	②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재단집계(정량)
	③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개최 횟수	재단집계(정량)
	④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평균 관객수	재단집계(정량)
	⑤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재단집계(정량)
	⑥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관객수	재단집계(정량)
지원체계	⑦	사랑방 연습공간 가동률	재단집계(정량)
	⑧	사랑방 관련 자료집/연구보고서 출간건수	재단집계(정량)
	⑨	사랑방 관련 언론보도건수	재단집계(정량)
	⑩	타지 생활예술동아리 결연건수	재단집계(정량)
	⑪	타국 생활예술동아리 교류건수	재단집계(정량)
궁극적 효과	⑫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	설문조사(정성)
	⑬	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	설문조사(정성)

○ ①부터 ⑥까지의 성과지표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지표들로서 생활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①‘전체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수혜자수⁴⁾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성남 지역 문화예술동호회의 관심도 및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사업성과의 전반적인 윤곽을 드러내주는 지표라

4) 시민 주체 사업이라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취지상 ‘수혜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함.

고 할 수 있음.

- ②에서 ④까지는 클럽간 네트워크 활동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활동’의 활성화 지표로서 해당 활동의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개최 횟수, 평균 관객수를 조사하여 사랑방클럽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크 조성 노력을 경유하여 얼마나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시 및 공연 등을 통한) 노력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게 하는 지표임.
- 한편 ⑤와 ⑥은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활동’과 함께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양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의 활성화지표로서 축제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와 축제를 방문한 총 관객수를 조사하여 이 축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얼마나 소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임.⁵⁾

○ 다음으로 ⑦에서 ⑪까지는 생활예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단이 경주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노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음.

- ⑦은 최근에 확보된 세 개의 사랑방문화클럽 전용 공간의 가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가동률(가동일수/가동계획일수 * 100)을 파악하여 지역별 연습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표임.
- ⑧‘사랑방 관련 자료집/연구보고서 출간건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성과관리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사업의 성과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확산하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향후 사업계획 마련에 환류하려는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지표임.
- ⑨‘사랑방 관련 언론보도건수’는 생활예술 사업의 전국적 발신기지를 꿈꾸는 성남문화재단이 사업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공감 활동에 나서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지표로서, 사업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지역 내외로 확산시켜 생활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임.
- ⑩과 ⑪은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네트워크 확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각각 ‘타지 생활예술동아리 결연건수’와 ‘타국 생활예술동아리 교류건수’를 성과 계획에 포함시켜 향후 사업의 확장 및 다각화에 대한 재단의 노력을 담보하게하려는 지표임.

○ 마지막으로 ⑫와 ⑬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활성화 노력이 결국 생활예술 참여자 및 참여자의 주변인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미쳤는지를 설문조사를 통

5) 현재까지 재단은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활동’과 함께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양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②와 ③에 해당되는 자료는 수집하였지만, ④‘평균 관객수’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음.

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정성지표로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가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음.

- ⑫‘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참여를 통해 겪게 된 변화 정도를 조사하여, 사업 결과의 효과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향후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지표임.
- 마지막으로 ⑬‘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는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자의 가까운 인물들, 즉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활예술 사업이 (직접적인 참여자 외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생활예술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인 문화예술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려는 지표임.

□ 본 연구에서 <표 6-2>의 평가지표 체계에 근거하여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할 때, ①-⑥까지의 성과지표는 (관객수를 제외한다면) 재단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나름대로 분석해볼 수 있으나, 여타의 지표들은 향후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

○ ①, ②, ③, ⑤의 경우에서도, 성남문화재단이 관련 데이터를 수합해오기는 했지만 이를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의 지표관리를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과지표 적용을 통한 계량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에 4장 문헌분석과 5장 인터뷰 분석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및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함.

○ 또한 성남문화재단이 2단계의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 중에서 후자는 사업지가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 급격하게 사업 규모와 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분석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초점을 맞춤.

○ 한편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가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⑫와 ⑬의 지표들 중에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⑫는 과거 재단이 실시해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만족도 조사는 애초에 기획한 참여자 변화도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6.2. 평가지표 적용 결과

1) 기획/계획 부문

- 평가지표 체계의 첫 번째 부문인 기획/계획 부문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역과 ‘성과계획의 적합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5> 기획/계획 부문 평가결과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결과(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획/ 계획 (25)	사업계획의 타당성 (5/5/5)	• 사업목적의 명확성	✓				
		• 사업구조 및 내용의 합리성	✓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				
	성과계획의 적합성 (5/5)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연계성	N/A				
		•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합리성	N/A				

- 먼저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역의 세 항목, 즉 ‘사업 목적의 명확성’, ‘사업구조 및 내용의 합리성’,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이란 지표에서는 모두 ‘매우 우수’(5점)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첫 번째 항목인 ‘사업 목적의 명확성’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외부 전문가들 및 사업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의의, 즉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상(像)’(성남문화재단, 2009: 66)을 기치로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및 ‘대안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에 성공했다는 내·외부의 일관적인 평가를 꼽을 수 있음. (cf. <표 5-1>)

- 이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는바, 이러한 목표 설정은 생활문화예술 진흥의 당위성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분명한 사업목표와 사업모델이 부재했던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선구적이고 창의적인 시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두 번째 항목인 ‘사업구조 및 내용의 합리성’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은 재단의 인력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을 결합한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생활예술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성남문화재단, 2006)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5대 정책사업과 같은 세부사업의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는 사실⁶⁾, 즉 <표 5-1>의 성과 개요에서 정리한 바 ‘철저한 과학적 연구에 입각한 사업 기획’ 및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이라는 강점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지역 특성에 대한 두 가지 고려가 세부사업의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높은 평가를 가능케 하는 요소인데, 그 하나는 1970년대 성남 본도심(중원구, 수정구) 개발에서부터 1990년대 신도심(분당구)의 개발, 그리고 2000년대 들어 판교까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질적인 주민구성과 도시 정체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었고(성남문화재단, 2008: 13),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역량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문화예술동호회(2006년 현재 1,103개 파약)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사업구성의 합리성은 ‘5대 사업’으로 요약되는 높은 층위의 사업구성(정체성 구축 사업을 필두로 하여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이라는 핵심 프로젝트,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창작지원 사업과 문화통화 사업)에 뿐만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구성하는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이라는 단계적 구조와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에서도 똑같이 확인됨.
- 세 번째 항목인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남 생활예술 사업 전부를 포괄하는 단일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동네’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별개의 평가가 필요한 바, 이 지표를 후자에만 적용한다면 ‘사업의 내발성을 담보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

6) 정책실천 태스크포스의 존재로 인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은 사업 준비기 및 초기에 다각적인 여론수렴(e.g. 2006년 10월 시민토론회, 2007년 1월 상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8월 문화정책 실천 자문회의, 10월 하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12월 성남시 도시공간에 관한 워크숍 등)과 기초통계조사(e.g. 2006년 성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2006년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7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등)를 의욕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계획의 마련에 성공함. 특별히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는 시민들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 성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성남문화재단, 2010: 18), 과거에 전문예술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되던 생활예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다각적인 연구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으로 철저하게 추진한 사례는 여전히 국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영체계 구축’과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운용’이라는 성과항목들을 근거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즉, 성남문화재단은 ‘문화기획부’라는 생활예술 정책 전담 부서를 운영하면서 생활예술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정보 제공, 전문 행정인력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추진체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구성원들은 년초의 클럽워크숍을 통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고 그 해의 사업 기획 및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음.

□ 다음으로 기획/계획 부문의 두 번째 영역인 ‘성과계획의 적합성’에서는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연계성’ 및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합리성’이라는 세부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N/A)할 수밖에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6-4>에서 제안한 성과지표들 중에서 우선 사업의 활성화 정도와 직결되는 다음의 여섯 가지 지표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표별로 매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함.

- ① 전체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 ②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③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개최 횟수, ④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평균 관객수
- ⑤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⑥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관객수

○ 이상의 기본 성과지표 외에도 제안된 여타 성과지표들을 단계적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현재의 생활예술 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통해서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⑫‘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와 ⑬‘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여 세심한 관리를 해야만 하는 지표들임.
- 기타 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성과지표들 역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측면이 개선되고 있으며 어떤 측면은 그렇지 않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집행/관리 부문

- 평가지표 체계의 두 번째 부문인 집행/관리 부문을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의 적정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6> 집행/관리 부문 평가결과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 결과(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집행/ 관리 (30)	집행의 효율성 (10/10)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			
		•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	
	관리의 적정성 (5/5)	• 성과관리의 체계성		√			
		• 인식공감의 적극성		√			

- 먼저 ‘집행의 효율성’ 영역에서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는 ‘우수’(8점)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반면,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는 ‘미흡’(4점)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를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2단계 5개년 이 시작되면서 성남시의 건축재정으로 인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이 줄어들고 그 여파로 사랑방문화클럽 관련 예산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연중 사업계획은 매년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추진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단계 5개년』과 『포지셔닝』연구에서 제안된 주요 기획들이 현실화되어왔다는 사실을 꼽을 수가 있음.

— 예컨대, 『포지셔닝』연구는 ‘클럽육성(사랑방)-네트워크활성화(사랑마루)-축

제(사랑마당) 발전 체계 마련'을 2단계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는바, 성남문화재단은 1단계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주민클럽'과 '청소년클럽' 등을 발굴하여 클럽육성의 범주를 확장하고, 문화공헌활동(현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2012년부터는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11개 지역, 19개 클럽)을 포함시켜 전국적인 생활예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아래 표는 2단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관련 주요 계획 및 추진 현황으로서, 각 계획별로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진행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몇몇 사업의 경우 추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우수'하다는 평가에 그친 이유를 보여주고 있음.

<표 6-7>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2단계 추진 현황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구별/동단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 구별/동단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으나 대부분의 클럽구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기반이 아닌 공동취미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동네를 클럽의 활동지역으로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활동체계가 확립되었으나, 이것이 일종의 관료제의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
생활예술의 전국과 세계 교류 네트워크 구축	- 2010년 '전국 색소폰 동호회 축제' 등 장르별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상시화하지는 못함. -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연계하여 2012년부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실행하기 시작(11개 지역, 19개 단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다 확대된 규모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개최 예정 - 2009년 미국, 일본, 영국, 불가리아, 독일 5개국 생활예술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세계시민문화클럽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관련 활동 확대 예정
장르별, 사업별 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클럽 활동의 장르를 지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지나친 세분화는 어렵다는 평가에 의거 공연/전시로 나누어 차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공연팀이 전시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불만이 전시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기에 향후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청됨.
구별 활동 거점 공간 '사랑방 센터' 개설	- 애초 계획한 '사랑방 센터'보다는 기능 및 규모가 축소된 형태이나 사랑방 연습공간을 원도심 1개소, 신도심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2010년~)

- 한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항목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는 비록 문화재단이 2008년과 2011년에 시민 참여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이 역시 일회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사업 관리를 위한 항시적인 시스템으

로 정착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임.

-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기금이나 복권기금이나 정부의 주요 기금이 사용된 사업을 평가할 경우에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가장 주요한 제도로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은 2008년도에 시민 20명을 선정하여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그룹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전문적인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문화정책과정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시민 문화기획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가까웠고, 2011년에는 15명의 시민을 선정하여 보다 체계화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은 대상이 아니었음.
- 물론 ‘시민주도의 문화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실행하였고 두 해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일년간의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환경변화나 갈등상황 등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함.
-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 북을 위해 운영해 온 ‘시민기자단’을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모니터링 그룹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다음으로 집행/관리 부문의 두 번째 영역인 ‘관리의 적정성’에서는 ‘성과관리의 체계성’과 ‘인식공감의 적극성’이란 항목이 있는데, 두 항목 모두 ‘우수’(4점)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성과관리의 체계성’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앞서 인터뷰에서 살펴본 것처럼(e.g. 전 재단직원, 0814), “처음에 재단이 생활예술 사업을 시작할 때 2개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것”이었다는 사실로부터 발현됨.

- 실제로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는 1단계 사업초기에서부터 현재 까지 진행되어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의 내용을 매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프로젝트북의 형태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나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를 편리하

게 제공하고 있었음.

- 연구보고서나 계획서와 같은 딱딱한 형식의 자료만이 아니라 시민기자들의 눈을 통해서 각종 회의 내용, 워크숍·사업설명회·클럽 파티 등의 진행상황, 문화공헌활동이나 사랑방클럽축제 등에 대한 다각적 정보 제공 등 사랑방과 관련된 현장 구석구석을 흥미로운 문화콘텐츠 형식으로 기록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프로젝트북을 통한 성과관리는 ‘우리동네’ 사업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고(cf. 프로젝트북 만이 아니라 해당 동네의 역사를 여러 주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북) ‘사랑방’ 사업은 그 규모와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보인다는 점(i.e. 2011년 1권, 2012년 2권), 또한 최근에는 문자콘텐츠 외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통해서 사업성적을 기록하여 보다 다각적인 자료 생산 및 유통을 꾀하는 시도가 문화정책 분야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

○ 한편 ‘인식공감의 적극성’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를 지역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와 의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최근의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마련될 수 있음.

- 4장 2절의 외부 문헌분석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사랑방문화클럽 관련 기사 건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관련 사업이 국무총리상이나 문화부장관상 등 문화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을 지속적으로 수상하면서 성남 지역 신문만이 아니라 타 지역 및 전국 단위 일간지들에게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 자리 잡고 있음.

<표 6-8> 연도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관련 기사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사랑방 문화클럽	7	36	21	26	68	65	112	73	408

-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수상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브랜드는 언론들 사이에 주목도를 높여왔으며,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별 클럽이나 클럽지기에 대한 보도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 신문들에서는 사랑방운영위원회의 활동에도 세세한 관심을 갖고 이뤄지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파악됨.

- 이를 통해서 재단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수상 소식이나 행사 홍보에 충실히 임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공감 활동이 헛수를 거듭하면서 해당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제는 언론들 사이에서 ‘성남 사랑방’의 가치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형성되어 대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3) 산출/결과 부문

- 평가지표 체계의 세 번째 부문인 산출/결과 부문을 ‘산출의 충실성’ 영역과 ‘결과의 효과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9> 산출/결과 부문 평가결과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 결과(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산출/ 결과 (45)	산출의 충실성 (20/5/5)	•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N/A				
		• 평가결과(개선과제) 이행 정도	N/A				
		• 사업 네트워크 및 지속기반 강화		√			
	결과의 효과성 (10/5)	•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	√				
		• 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	N/A				

- ‘산출(output)의 충실성’ 부문은 본 평가지표에서 가장 많은 배점이 할당된 영역(30점)이지만, 그 중에서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20점)와 ‘평가결과(개선과제) 이행 정도’(5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성과지표가 없다는 점, 또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름의 달성도를 추정해볼 수는 있는바, <표 6-4>에서 제안한 1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현재까지 매년 데이터가 축적되어 그 성과를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은 ① 전체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②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 ③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개최 횟수, ⑤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임.

<표 6-10>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참여 클럽수(개)	56	97	129	167	204	162	209
참여 회원수(명)	1,567	2,062	2,511	2,719	2,939	3,486	4,044

- 우선 전체 참여 클럽수를 보면 2007년 사업이 시작된 해에 56개 클럽이 참여한 것에 비해 2013년에는 209개의 클럽이 참여함으로써 (2012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참여확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7년간 약 273%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참여 회원수는 매년 적게는 208명(2009-2010)에서 많게는 558명(2012-2013)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지난 7년간 약 15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11>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참여 클럽수⁷⁾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여 클럽수(개)	37	67[7팀]	102[13팀]	105[13팀]	105[12팀]	137[16팀]
개최 횟수(회)	n/a	46	45	40	34	26

- 다음으로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과 관련해서 재단이 집계해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②‘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참여클럽 및 참여자수’에서 참여클럽수가 초반 3년 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0년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 그러나 2012년에 ‘문화공헌’ 사업이 ‘문화클럽한마당’ 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에 다시 새롭게 참여확대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주목됨.

7)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과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 참여 회원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며, 전체 관객수 및 평균 관객수 역시 현재까지는 집계되지 않음. 한편 2007년은 클럽들이 모여서 구성한 ‘팀’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개별 클럽의 활동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③‘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개최 횟수’는 오히려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참여클럽수의 증가와 반비례하는 경향으로서 해당 활동의 횟수는 줄어들지만 각 활동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활동의 핵심 성공요인은 생활예술 공동체가 쌓아온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성남시의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할 때, 활동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향후 평균 관객수 지표의 도입과 함께 활동 횟수 역시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6-12> 사랑방클럽 축제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여 클럽수(개)	38	78	n/a	157	121	83
참여 회원수(명)	710	1,271	n/a	1,801	1,106	1,260

- 다음으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사랑방클럽 축제’에 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클럽이 참여한 해는 2010년(157개)이었고 그 다음은 2011년(121개)이었으며,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해는 2010년(1,801명)이었고 그 다음은 2008년(1,271명)이었음.
 - 따라서 사랑방클럽 축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이 가장 성공적인 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이후로는 축제에 참여하는 클럽수가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으며 2012년 축제 참여회원수가 (2011년보다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200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성기 시절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 ‘문화공헌/문화클럽한마당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참여 클럽수’, ‘사랑방클럽 축제 연도별 참여 클럽 및 회원수’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 활성화 지표’의 윤곽을 그려보았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2007년 이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역량을 반영하여 내년도부터는 각 성과지표마다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8) 2009년 제 3회 사랑방클럽 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음.

- 한편 ‘산출(output)의 충실성’ 부분의 마지막 항목인 ‘사업 네트워크 및 지속기반 강화’ 지표에 대해서는 <표 5-1>의 성과 개요에서 정리된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생활예술 정책 확산’이라는 결과물을 근거로 충분히 ‘우수’(4점)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예컨대 국내 ‘문화정책생태계에서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정책은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정책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로써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전문가 및 활동가들에게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노하우(know-how)와 이를 통한 도시발전 비전을 전수·확산시키는 “발신기지”가 되어줄 것을 기대’받게 되었다(성남문화재단, 2010: 10-11)는 재단 내부의 평가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생활예술의 모범사례로 타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 화성시, 익산시, 수원시, 청주시, 부산 사하구 등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되면서 ‘지역문화사업의 성공사례’로 많은 상을 받았다는 재단 외부의 평가(조현성, 2012: 104)와 정확히 일치함.
 - 이 과정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향상되고 사업 지원체계의 구축(e.g. 사랑방 연습장 3곳 확보)이나 재단의 지원정책 역량이 성숙한 것은 사업의 지속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졌다는 평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행사나 유관 기관 및 타 지역 생활예술단체들과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 점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됨.⁹⁾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2단계에서 제시한 ‘생활예술의 전국과 세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3단계 사업과정에서 보다 성숙해진 내적 역량과 외적 환경을 계기로 삼아 ⑩‘타지 생활예술동아리 결연건수’ 및 ⑪‘타국 생활예술동아리 교류건수’ 등의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

9) 최근 성남문화재단이 언론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성남문화재단이 유관 기관 및 타 지역 생활예술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일이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음: <성남문화재단·경원대 산학협력 체결>(2010.03.22. 머니투데이 뉴스), <익산문화클럽, 성남 문화재단 사랑방 클럽과 MOU 체결>(2011.09.09. 익산시민뉴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과 협약 체결>(2012.02.27. 성남투데이), <죽전관리역-수서관리역 업무협약 체결>(2012.11.19. 뉴스웨이브), <분당구청-성남문화재단, 동주민자치센터활성화 업무 협약>(2013.08.07. 분당신문) 등.

□ 산출/결과 부문의 두 번째 영역이자, <표 6-2>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 지표 체계(가안)’의 마지막 영역인 ‘결과의 효과성’ 영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지표로서 ⑫‘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와 ⑬‘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⑫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 만족도’ 조사와는 구별되는 ‘영향도’ 조사를 설계하여 실행하였음(cf. 부록).

○ 2013년 8월 중순에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는 오프라인 413명, 온라인 12명으로 총 42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6-13>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별	무응답 13명			총 412명			
	남 19%(77명)			여 81%(333명)			
나 이	무응답 16명			총 409명			
	20세 이하 0%(1명)	21~30세 4%(17명)	31~40세 24%(97명)	41~50세 29%(120명)	51~60세 31%(127명)	61세 이상 11%(43명)	
학 력	무응답 22명			총 403명			
	고 졸 이하 17%(67명)	대 학교 재 학/중퇴 12%(49명)		대 학교 졸 업 63%(254명)	대 학 원 이 상 8%(33명)		
거 주 지 역	무응답 15명			총 410명			
	중원구 26%(107명)		수정구 19%(78명)		분당구 55%(225명)		
직 업	무응답 19명			총 407명			
	전 문 직/ 자 유 직 20%(82명)	일 반 사 무 직/ 관 리 직 8%(31명)	판 매 직/ 서 비 스 직 5%(20명)	가 정 주 부 57%(232명)	무 직/은 퇴 4%(17명)	기 타 6%(24명)	
참 여 사 업	무응답 15명			총 410명			
	사 랑 방 70%(288명)	우 리 동 네 34%(138명)	문 화 통 화 17%(71명)	사 랑 방 & 우 리 동 네 6%(23명)	우 리 동 네 & 통 화 0%(4명)	사 랑 방 & 통 화 16%(67명)	사 랑 방 & 동 네 & 통 화 0%(2명)
참 여 횟 수 (월)	무응답 22명			총 403명			
	1 회 이 하 22%(89명)		2 회 19%(76명)	3 회 16%(65명)		4 회 이 상 43%(173명)	
참 여 시 간 (회)	무응답 22명			총 403명			
	2 시 간 이 하 27%(107명)		2-3 시 간 43%(173명)	3-4 시 간 19%(73명)		4 시 간 이 상 12%(50명)	
참 여 분 야	무응답 124 (우리동네 사업 참여자 포함)			총 301명			
	공 연 예 술 분 야 68%(205명)		시 각 예 술 분 야 23%(70명)	문 학 및 역 사 분 야 4%(12명)		기 타 5%(14명)	

- 몇 가지 주목할 점을 언급하자면, 우선 여성 응답자가 81%(총 412명 중 333명)를 차지하여 성남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실시한 설문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성비가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대는 30세에서 60세 사이가 84%(총 409명 중 34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 입학 이상이 83%(총 403명 중 336명)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의 거주지는 분당구가 55%(총 410명 중 225명), 직업은 가정주부가 57%(407명 중 232명)로 각각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예술 참여사업 문항 응답자 410명중,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참여자는 70%(288명), 우리동네 사업 참여자는 34%(138명), 문화통화 넘실 참여자는 17%(71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 94명은 두 사업 이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들 응답자가 자신들이 생활예술 참여를 통해서 겪게 된 변화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의 12가지 문항에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표 6-14>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 내용 요약

생활 예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0%(0명)	4.5%(19)	1.4%(176)	50.4%(214)	2.8%(12)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0%(0)	6.8%(29)	40.9%(174)	48.9%(208)	3.3%(14)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0%(0)	9.4%(40)	42.8%(182)	43.5%(185)	3.5%(15)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0.2%(1)	8.5%(36)	32.9%(140)	51.8%(220)	6.1%(26)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0.2%(1)	4%(17)	33.9%(144)	58.1%(247)	3.3%(14)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0%(0)	2.8%(12)	31.5%(134)	62.4%(265)	3.1%(13)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0%(0)	3.1%(13)	42.6%(181)	51.5%(219)	1.9%(8)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0%(0)	7.3%(31)	43.8%(186)	45.2%(192)	2.8%(12)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0%(0)	3.1%(13)	40.9%(174)	53.9%(229)	1.4%(6)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0%(0)	2.6(11)	34.6%(147)	61.2%(260)	1.6%(7)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0)	0.7(3)	16.5%(70)	80.0%(340)	2.4%(10)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0.7%(3)	7.3(31)	33.9%(144)	53.6%(228)	3.5%(15)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남 생활예술 사업 참여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이를 통해서 개인적 발전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전체적인 사업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 11번째 질문에 대하여 무려 96%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80%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12번)에도 약 88%가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생활예술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자아실현 및 개인적인 발전’의 영역에서 생활예술 사업의 영향도를 측정하고자 한 1번~5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①지적 향상(50.4%), ②자신감 향상(48.9%), ③고정관념 변화(43.5%), ④창조성 계발(51.8%), ⑤건강 및 행복감 증진(51.8%)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사회통합 및 지역정체성 제고’ 차원의 영향도를 측정하고자 한 6번~10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전에 관한 질문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아서 (i.e. 대부분 90% 이상) 연구진을 놀라게 하였는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도 ⑥이웃 확대(62.4%), ⑦타인 이해(51.5%), ⑧지역에 대한 열정(45.2%), ⑨지역 이미지 변화(53.9%), ⑩공공기관 친밀감(61.2%) 등에서 개인적인 발전에 관한 응답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10가지 질문들을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았던 순서대로 배열하면, ⑩공공기관 친밀감(96%) > ⑨지역 이미지 변화(95%) > ⑦타인 이해(94.1%) > ⑥이웃확대(93.9%) > ⑤건강 및 행복감 증진(93%) > ①지적 향상(92%) > ②자신감 향상(90%) > ⑧지역에 대한 열정(89%) > ③고정관념 변화(86%) > ④창조성 계발(85%)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은 425명의 응답자 중 무려 407명(96%)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항목이었음.
 - 다음으로는 ‘지역 이미지 변화’, ‘타인 이해’, ‘이웃 확대’의 순서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생활예술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의 사회적 자본 증가,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정체성 제고를 실현하고자 한 성남문화재단의 목표가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
 - 이 질문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긍정적 답변을 획득한 것은 ④‘창조성의 중요성

을 느낀 적이 있다’는 항목이었지만 이 경우에도 무려 8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위의 응답결과를 1997년 영국에서 발표된 생활예술 참여자들의 설문응답 결과(Matarasso, 1997: 94-95)와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표 6-15> 2013 성남과 1997년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 설문결과 비교¹⁰⁾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Yes		No		I don't Know	
		성남	영국	성남	영국	성남	영국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92%	79%	5%	12%	3%	9%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90%	80%	7%	8%	3%	12%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86%	36%	9%	34%	4%	30%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85%	56%	9%	18%	6%	26%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93%	48% 77%	4%	29% 7%	3%	23% 16%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94%	92%	3%	4%	3%	4%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94%	56%	3%	26%	2%	18%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89%	53%	7%	21%	3%	26%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95%	27%	3%	61%	1%	12%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96%	n/a	3%	n/a	1%	n/a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7%	n/a	1%	n/a	2%	n/a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88%	49%	8%	21%	4%	30%

10) ‘2013 성남 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 설문지’는 의도적으로 마타라소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계함으로써, 생활예술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효과를 측정하고 성남의 결과를 영국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설문 문항이 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성남의 특수한 관심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질문을 구성하였으므로 몇몇 질문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예컨대 영국의 경우 ⑤번 질문은 ‘건강해 졌는가’라는 질문과 ‘행복해 졌는가’라는 질문을 따로따로 묻고 있고, ⑦번 질문은 다문화주의가 훨씬 뿌리깊게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인해서 ‘culture’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⑨번 질문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느끼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 한편 성남 설문지 응답자 425명은 모두 성인인 반면, 영국 설문지에는 성인 243명(영국나이 15세 이상), 미성년자 270명(영국나이 15세 미만)이 참여하여 총 513명이 설문에 응답. 남녀 비율은 성남이 여성 응답자 81%, 영국이 여성 응답자 63%로 두 곳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게 나타남(cf. 부록 2).

-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마타라소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성남의 생활예술 사업이 매우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음.
 - 성남 생활예술 참여자들은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서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들 보다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성남과 영국의 답변 중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⑥이웃확대에 대한 질문으로서, 성남은 94%, 영국은 9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함.
 - 반대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질문의 재구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⑨번 질문을 제외한다면) ③고정관념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서, 성남은 86%, 영국은 36%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함.

- 이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산출/결과 부문에서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는 ‘매우 우수’(10점)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생활예술 참여자의 가족과 이웃 등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를 설문조사하여 ‘결과의 효과성’ 영역에 관한 지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6.3. 소결

- 이번 장에서는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평가지표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4장과 5장에서 이루어진 문헌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평가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토 및 검증해보고자 하였음.

<표 6-16>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평가 결과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 결과(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획/ 계획 (25)	사업계획의 타당성 (5/5/5)	• 사업목적의 명확성	√				
		• 사업구조 및 내용의 합리성	√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				
	성과계획의 적합성 (5/5)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연계성	N/A				
		•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합리성	N/A				
집행/ 관리 (30)	집행의 효율성 (10/10)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			
		•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	
	관리의 적정성 (5/5)	• 성과관리의 체계성		√			
		• 인식공감의 적극성		√			
산출/ 결과 (45)	산출의 충실성 (20/5/5)	•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N/A				
		• 평가결과(개선과제) 이행 정도	N/A				
		• 사업 네트워크 및 지속기반 강화		√			
	결과의 효과성 (10/5)	• 참여자 만족도 및 영향도	√				
		• 참여자 주변인 인식변화	N/A				

- <표 6-16>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계획 부문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역은 세 항목 모두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지만, ‘성과계획의 적합성’ 영역은 아직까지 생활예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분명한 성과지표를 채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지표 목표치가 존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였음.
- 집행/관리 부문에서는 ‘집행의 효율성’ 영역에서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그리고 ‘관리의 적정성’ 영역에서 ‘성과관리의 체계성’과 ‘인식공감의 적극성’ 항목에 대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항목은 과거 두 차례의 운용 경험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까닭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음.
- 한편 산출/결과 부문에서 ‘산출의 충실성’ 영역은 제안된 13가지의 성과지표들 중에서 ‘활성화 지표’에 속하는 항목들을 재단이 집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성과지표 목표치의 부재로 인해서 계량화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었고, 다만 ‘사업 네트워크 및 지속기반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각종 수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반으로 지역, 국가, 해외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근거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산출/결과 부문에서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25명의 성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는 물론이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인 발전’ 영역과 ‘사회통합 및 지역정체성 제고’ 영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답변이 제시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성남 생활예술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우수’하며 해당 사업이 애초부터 설정해온 궁극적인 목표 역시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개되어온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정책 사업을 개념적·역사적으로 정리해보고, 해당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3단계 계획의 수립에서 참조할만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우선 ‘문헌분석’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발간한 주요 연구보고서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및 우리동네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북을 검토하고, 외부전문가의 논문 및 보고서 그리고 언론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 개요를 도출하였음.
-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내부 문헌 분석과 외부 문헌 분석이 공통적으로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철저한 연구에 입각한 사업 기획,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 통합적 지원체계 조성 노력, 지역공동체 형성 및 생활공동체 확산에 기여한 점 등을 성남 생활예술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로 꼽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cf. 표 4-9).
- 성남 생활예술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국내 생활예술사업 확산의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성남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도시 브랜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는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과 재단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cf. 표 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얻게 된 보다 중요한 통찰은 성남 생활예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 자리 잡은 문제점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우선 대내외적으로 성남 생활예술의 대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로 인해서 사업 초기의 자발성과 생동감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참여자들의 기대와 재미 하락, 클럽간 네트워크의 질 하락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은 2단계 사업의 중핵을 이루는 프로젝트였으며 양자 공히 시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정신에 걸맞은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 정반대로 ‘관료제화와 매너리즘’이 아니라 ‘분명한 사업모델의 부재’라는 문제

점이 부각되었음(cf. 표 5-2).

-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한 ‘우리동네’ 사업은, 일종의 관심공동체로서 문화예술동호회와 같이 이미 활성화된 조직적 기반을 활용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는 달리, 여러 동네에서 적용가능한 일관적인 사업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서 재단, 매개자, 예술가, 주민 등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 간의 업무 분장에서 혼동이 발생했고, ‘문화예술만으로 마을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단기적으로 마을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대변되는 현실적인 제약 아래서 뚜렷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사업구정으로 인해 예산삭감 등의 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 심층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사업은 매우 이상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전개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사업모델과 내용이 도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뚜렷한 정체 또는 쇠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는 점임.

○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체계를 설정·적용하여 성남 생활예술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획/계획’ 부문과 ‘산출/결과’ 부문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였지만, ‘집행/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평가지표 체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바, 특히 분명한 성과지표를 채택한 바가 없고 따라서 각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성남 생활예술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결과,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425명의 생활예술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자아실현 및 개인적인 발전’ 영역과 ‘사회통합 및 지역정체성 제고’ 영역 모두에서 (영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성남 생활예술사업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에서 정리하였듯이, 이 연구는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향후 과제를 압축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첫째로, 사업모델은 단순화(simplification)하는 반면에 사업대상은 다각화(diversification)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의 다각화란 현재 우리나라 문화정책 현장에서 주요한 생활예술 공동체를 ‘관심공동체’, ‘지역공동체’, ‘직장공동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cf. 그림 1-2), 지금까지 성남 생활예술 사업은 앞의 두 가지만 다루었을 뿐 ‘직장공동체’를 위한 사업은 ‘사랑방정오콘서트’의 형식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함.
 - 즉 판교의 직장인들은 단순히 감상자의 위치에 머물렀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나 ‘우리동네’ 사업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의 위치에 자리매김되지 않은 채로 ‘전통적인’ 문화향유 정책의 대상처럼 취급되고 있음.
 - 물론 현재 ‘우리동네’ 사업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공동체’ 발굴 및 육성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재단의 제한된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됨.
 - 바로 이 대목에서 ‘사업모델의 단순화’가 요청되는데, ‘우리동네’ 사업이 수많은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과를 이룩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동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성남문화재단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여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단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구축해왔으며, 뚜렷한 단계적 접근과 확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 참여자들까지 많은 경험과 원리를 체득해온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업모델과 브랜드 가치를 ‘사업 다각화’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임.
 - 즉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사업이 과거에는 ‘5대정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구조조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 중앙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여가정책의 확산에 발을 맞추어, 앞으로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사랑방동네클럽 사업’, ‘사랑방직장클럽 사업’의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외적 환경 및 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세 사업은 현재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즉 ‘관심공동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현실적으로 재단의 관리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적으로는 ‘문화클럽’, ‘동네클럽’, ‘직

장클럽' 간의 네트워크 활동과 이를 통한 문화공헌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임.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클럽 사업'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 클럽들은 각각 향시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헌활동을 벌이게 될 것인바, 과거 '우리동네' 사업이 추진했던 3년 단위 마을 지원 사업은 (각 구청들과의 MOU를 기반으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사랑방동네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해당 클럽들의 '협력적 경쟁'(co-petition)을 자극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로 운영될 수 있음.
- '사랑방직장클럽'의 경우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이 몰려있는 성남시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재단이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문화예술동호회 실태조사를 실시했듯이 현재로서는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직장동호회 활동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랑방클럽'들이 활성화될 경우, 세대와 직업, 거주지 면에서 현재까지 '사랑방문화클럽'이 보여온 편중현상을 완화시키면서 기존의 클럽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와 자극,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로, 사업계획은 보다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업평가는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성남 생활예술 정책의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과 기획이 매우 충실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학적인 현실에 대한 세밀한 고려보다는 이상적인 지향과 대안적인 모델의 제시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발견하였음.
-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은 접근이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척박한 우리나라 문화정책 현장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2단계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기획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상당 부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생활예술 사업이 성남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사업 3단계를 위한 계획과정에서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따라서 '2013 대화모임'에서 복수의 사업 참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과거의 5대정책 사업이나 과거의 3단계 15년 계획의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변화한 외적 요인들(external forces)과 내적 역량들(internal capabilities)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 현재 3단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팀에 재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사업에 실제로 참여해온 시민들과 주민들을 참가시키고 있는데, 향후 생활예술 사업의 안정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생활예술 전담부서로서 문화진흥국내의 ‘문화기획부’만이 아니라 ‘문화사업부’까지, 나아가서는 ‘예술국’과 ‘경영국’, 그리고 ‘홍보미디어실’까지 3단계 계획의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생활예술’ 정책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성남문화재단 전체가 머리를 모으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재단 전체의 역량을 기울여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성남시청 담당 과, 성남시의회 담당 의원실과 미리 공유하고 조율함으로써 3단계 계획에 성남시의 문화정책 입안자들(cultural policy makers) 대부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향후 계획의 실행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아울러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로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계획을 매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히 요청됨.
- 물론 성남문화재단이 단기적인 사업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폼이 나지 않고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이 매진하기 어려웠던 생활예술사업에 장기적으로, 뚝심 있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cf. 오세형, 2010), 8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체계화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각 지표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13개의 성과지표(cf. 표 6-4)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가령 ‘사랑방문화클럽’의 수를 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200개 정도를 유지하면서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라는 한 직원 재단의 인터뷰를 상기한다면, 재단 차원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따라서 직원들 및 재단의 현재 역량에 걸맞은 적절한 도전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과지표의 운영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이 향후에도 국내 생활예술사업 발신기지로서의 위상

을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해외 생활예술 공동체와의 교류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생활예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이 해당 사업의 목표와 운영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서 성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왔다는 점은 여러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왔는바,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는 대신 이제는 그와 같은 여러 지역의 생활예술사업의 성과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함.
- 2012년부터 사랑방클럽축제에 타지의 생활예술 동아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사랑방클럽축제를 성남시의 사랑방클럽들과 전국의 생활예술동호회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며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연이나 포럼과 같은 단기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클럽/동호회 회원들이 평소에 지역을 오고 가면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갈 수 있는 자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단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교류의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해나가야 함.
- 한편, 성남문화재단은 2단계 사업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해외 교류의 확대를 천명하였지만 2009년 9월 ‘세계문화클럽포럼’의 개최 이후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2009년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바, 이는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독일, 불가리아 등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생활예술 전문가들이 초청되어서 해당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생활예술 단체들과의 교류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2013년 6월 중국 문화부와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방문하여 “향후 베이징 시민문화클럽과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상호교류”를 희망하면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포럼’이나 ‘컨퍼런스’가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생활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이나 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해당 국가의 생활예술사업 참여자들로서 일반 시민 및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세계문화클럽포럼’ 이전에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문

화클럽포럼’을 먼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플랫폼에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국적으로는 시민 참여자들간의 정기적인 교류 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물론 해외 교류는 여행경비나 체류경비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동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초청하는 나라의 클럽회원들이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류경비를 최소화하고 보내는 나라에서는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 년에 한 클럽을 선정하여 교통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인구 규모 15억 2천200만명(세계의 22%), 경제 규모 14조 3천억달러(세계 GDP의 20%)로 세계 경제의 가장 활력이 넘치는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즐비한 동아시아는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바, 현재 이러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상품은 (미국의 콘텐츠를 제외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생활예술동호회에 대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관심과 호응 역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성남문화재단이 향후 ‘타지 생활예술동아리 결연건수’나 ‘타국 생활예술동아리 교류건수’ 등의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온 국민의 창조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생활예술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함.
- 2012년 5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및 교류행사가 향후 개최된다고 할 때, 성남시가 이러한 기획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실질적인 도약의 전기를 예상보다 빨리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됨.

[참고문헌]

- 강운주 외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 김세훈 외 (2008)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세훈(2011) 「사랑방 문화클럽은 왜 주목되었나」, 『커뮤니티와 아트』 2011.12, 경기문화재단.
- 민인철 (2013) 『포커스광주 2013-13: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박소현 외 (2012)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은실 (2009) 「창의적 공동체의 특성에서 살펴 본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2009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 “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박홍순 (2008)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의 의미에 대하여」, 『“생활속의 문화클럽활동 지원방안” 세미나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성남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2006.12.
- 성남문화재단 (2007)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8.02.
-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2009.02.
- 성남문화재단 (2010)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2010.01.
- 성남문화재단 (2011) 『문화정책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2011.10.
- 양효석 (2009) 「‘생활 속의 예술’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2009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 “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오세형 (2010) 「광역과 기초문화재단간 예술행정의 역할분담」, 『예술정책의 현안과 모색: 정책으로 답하다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유상진 (2010) 「성남시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사례」, 『예술정책의 현안과 모색: 정책으로 답하다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현식 (2009) 「지역문화와 창조도시론-서울과 성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pp. 315-341.
- 이현식(2011) 「시민들을 어떻게 문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플랫폼』

2011년 9·10월호, 인천문화재단

- 윤소영 외 (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 외 (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3집, pp. 31-54.
- 전수환 (2009) 「성남시민주체의 창조도시 방향성」, 『2009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 전수환·박승현 (2008) 「시민주도의 창조도시 만들기-수도권 중소도시로서의 성남 사례」,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자료집』, 한국문화경제학회.
- 조현성 외 (2012)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예술정책연구 04: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7)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적 패러다임 연구』, 문화관광부

- DCMS (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Earthscan.
- Landry, C. & Bianchini, F. (1995) *The Creative City*, London: Demos.
-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부록 1]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 설문지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2006년 이후로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목표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문화통화념실 사업 등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설문지는 위의 사업들에 참여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현재까지의 생활예술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정종은 박사(서울대학교 미학과)
공동연구원 유상진 과장(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김솔지 학생(서울대학교 미학과 대학원)

※ 다음 12개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생활예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 다음은 조사 관리와 통계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개인적 특성에 대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의 학교 다닌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중퇴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① 중원구 ② 수정구 ③ 분당구

5.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자유직 ② 일반사무직/관리직 ③ 판매직/서비스직
④ 가정주부 ⑤ 무직/은퇴 ⑥ 기타

6. 귀하께서 참여하신 생활예술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②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③ 문화통화 넘실

7. 위 사업에 참여하신 횟수는 월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 ① 1회 이하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8. 매 회 참여하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시간 포함)

- ① 2시간 이하 ② 2-3시간 ③ 3-4시간 ④ 4시간 이상

9.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주로 참여하신 경우, 클럽의 활동 분야는 주로 어느 쪽입니까?

- ① 공연예술 분야 ② 시각예술 분야 ③ 문학 및 역사 분야 ④ 기타

*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설문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013년 8월에 실시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우리동네 사업, 문화통화 사업 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다만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참여자의 경우, 특정장르 과대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팀/전시팀을 고려하여 추가표집을 실시함.

<표>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무응답 13명			총 412명		
	남 19%(77명)			여 81%(333명)		
나이	무응답 16명			총 409명		
	20세 이하 0%(1명)	21~30세 4%(17명)	31~40세 24%(97명)	41~50세 29%(120명)	51~60세 31%(127명)	61세 이상 11%(43명)
학력	무응답 22명			총 403명		
	고졸 이하 17%(67명)	대학교 재학/중퇴 12%(49명)		대학교 졸업 63%(254명)	대학원 이상 8%(33명)	
거주 지역	무응답 15명			총 410명		
	중원구 26%(107명)		수정구 19%(78명)		분당구 55%(225명)	
직업	무응답 19명			총 407명		
	전문직/ 자유직 20%(82명)	일반사무직/ 관리직 8%(31명)	판매직/ 서비스직 5%(20명)	가정주부 57%(232명)	무직/은퇴 4%(17명)	기타 6%(24명)
참여 사업	무응답 15명			총 410명		
	사랑방 70%(288명)	우리동네 34%(138명)	문화통화 17%(71명)	사랑방& 우리동네 6%(23명)	우리동네 & 통화 0%(4명)	사랑방 & 통화 16%(67명)
참여 횟수 (월)	무응답 22명			총 403명		
	1회 이하 22%(89명)	2회 19%(76명)		3회 16%(65명)		4회 이상 43%(173명)
참여 시간 (회)	무응답 22명			총 403명		
	2시간 이하 27%(107명)	2~3시간 43%(173명)		3~4시간 19%(73명)		4시간 이상 12%(50명)
참여 분야	무응답 124 (우리동네 사업 참여자 포함)			총 301명		
	공연예술 분야 68%(205명)		시각예술 분야 23%(70명)	문학 및 역사 분야 4%(12명)		기타 5%(14명)

- 위의 표는 설문조사 응답자 총 425명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직업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으로서, 비율(%)은 각 항목별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여성 응답자가 81%(총 412명 중 333명)를 차지하여 성비가 편중된 면이 있으나, 성남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실시한 『문화정책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이하 『2011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가 93%(총 169명 중 157명)를 차지한 것 보다는 완화되었으며, 설문조사 시마다 이러한 편중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성남에서 여성이 생활예술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 연령대는 30세에서 60세 사이가 84%(총 409명 중 344명)를 차지하였으며, 대체로 그 연령대 내에서 골고루 분포(31~40세 24%, 41~50세 29%, 51~60세 31%)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 입학 이상이 83%(총 403명 중 336명)로, 『2011 만족도 조사』에서 고졸 이하 20%(총 169명 중 34명), 대졸 68%(114명), 대학원이상 10%(16명)로 집계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남.
- 『2011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신도심(분당/판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분당구 거주자가 55%(총 410명 중 22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중원구 거주자 26%(107명), 수정구 거주자 19%(78명) 순으로 나타남.
- 설문 응답자 중 가정주부는 57%(407명 중 232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1 만족도 조사』에서 주부 비율이 74%(125명)에 해당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수치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전문직/자유직은 2011년 15%에서 2013년 20%로, 사무직/관리직은 2011년 2%에서 2013년 8%로 증가하였음.
- ‘참여 사업’ 문항 응답자 410명 중,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참여자는 70%(288명), 우리동네 사업 참여자는 34%(138명), 문화통화 ‘넘실’ 참여자는 17%(71명)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92명은 두 사업 이상, 2명은 세 사업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문화통화 ‘넘실’ 사업 참여자 71명 모두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이나 우리동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 횟수에 대한 문항에는 월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43%(총 403명 중 17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회 이하(22%), 2회(19%), 3회(16%) 순으로 나타났다.
- 참여 시간에 대한 문항에는 월 2-3시간이라는 응답이 43%(총 403명 중 17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시간 이하(27%), 3-4시간(19%), 4시간 이상(12%)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참여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30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공연예술 분야에 68%(205명), 시각예술 분야에 23%(70명)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1 만족도 조사』에 비해 응답자 편중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부록 3]

성남과 영국의 생활예술사업 참여자 설문 결과 비교

- 성남 생활예술사업 참여자들의 설문지 응답 내용은 이미 본문에서 <표 6-14>를 통해서 자세하게 제시되었는바, 성남의 결과를 본 설문조사의 원형으로 사용되었던 마타라소의 설문 결과와 보다 상세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표>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 내용 요약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Yes		No		I don't Know	
		성남	영국	성남	영국	성남	영국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92%	79%	5%	12%	3%	9%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90%	80%	7%	8%	3%	12%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86%	36%	9%	34%	4%	30%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85%	56%	9%	18%	6%	26%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93%	48% 77%	4%	29% 7%	3%	23% 16%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94%	92%	3%	4%	3%	4%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94%	56%	3%	26%	2%	18%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89%	53%	7%	21%	3%	26%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95%	27%	3%	61%	1%	12%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96%	n/a	3%	n/a	1%	n/a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7%	n/a	1%	n/a	2%	n/a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88%	49%	8%	21%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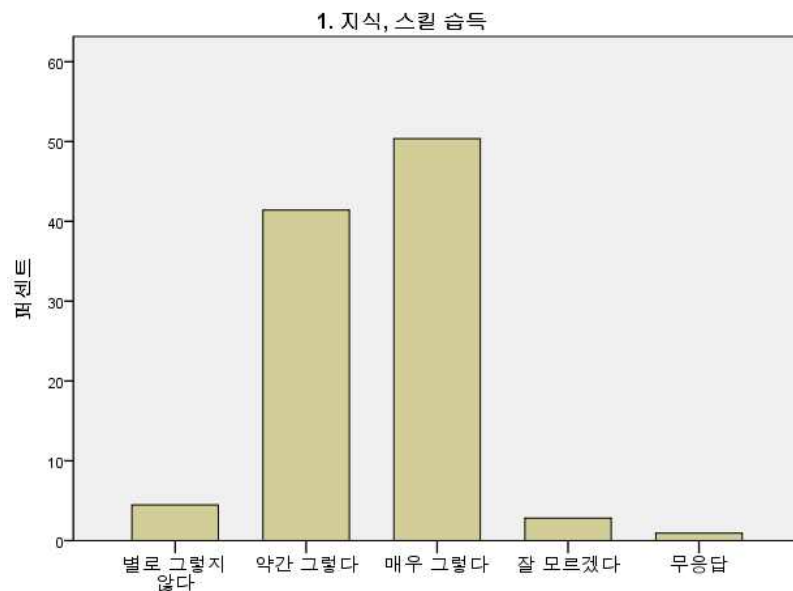
- 위의 표와 같은 응답 결과를 나타낸 성남문화재단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 응답자 425명은 모두 성인이었던 반면, 영국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243명(영국 나이 15세 이상), 미성년자 270명(영국 나이 15세 미만)이 참여하여 총 513명이 설문

응답.

- 남녀 비율은 성남이 여성 응답자 81% 남성 응답자 19%, 영국이 여성 응답자 63%, 남성 응답자 37%로 두 곳 모두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남 설문지에는 11개의 항목이, 영국 설문지에는 24개의 항목이 있었으며, 이 중 공통 질문인 9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두 설문지의 답변 내용을 비교함.
- 질문 5의 경우, 영문 설문지 질문 중 2개 문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자의 각 문항에 대해 따로따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질문 7의 경우, 영국 설문지는 다문화주의가 훨씬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인해서 ‘other people’s cultures’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향상 정도를 질문하고 있으나, 우리 상황에서는 좀 더 상세한 개념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점/입장/문화의 변화 정도를 질문하였음.
- 한편 질문 9의 경우, 성남 설문조사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느꼈는가’를 묻고 있는 반면에 영국 설문조사에서는 ‘다르게 느꼈는가(feel differently)’를 묻고 있어서 엄밀한 비교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사는 곳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함.
- 영국 설문 응답지가 ‘그렇다(Yes)’, ‘아니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의 세 가지 답변으로만 나뉘져 있으므로 성남 설문지의 다섯 가지 답변을 비교를 위해 세 가지로 통합하여 비교함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Yes’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No’로, ‘무응답’을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I don’t Know’)로 대응시킴).
- 영국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한 형식으로 퍼센트로 비교하며,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함.

□ 질문 1) 생활예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1.지식,스킬 습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4	0.9	0.9	0.9
	별로 그렇지 않다	19	4.5	4.5	5.4
	약간 그렇다	176	41.4	41.4	46.8
	매우 그렇다	214	50.4	50.4	97.2
	잘 모르겠다	12	2.8	2.8	100.0
합계		425	100.0	100.0	



질문1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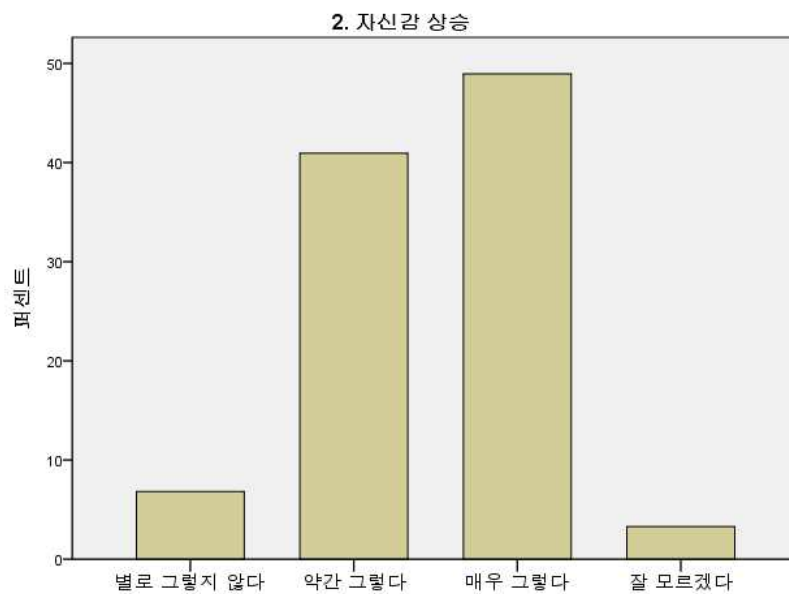
Have you learnt any skills by being involved?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성남	92%	5%	3%
영국	79%	12%	9%

○ 생활예술 참여를 통한 ‘지적 향상’ 여부에 관해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남과 영국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성남의 경우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보다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질문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2. 자신감 상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별로 그렇지 않다	29	6.8	6.8	6.8
	약간 그렇다	174	40.9	40.9	47.8
	매우 그렇다	208	48.9	48.9	96.7
	잘 모르겠다	14	3.3	3.3	100.0
	합계	42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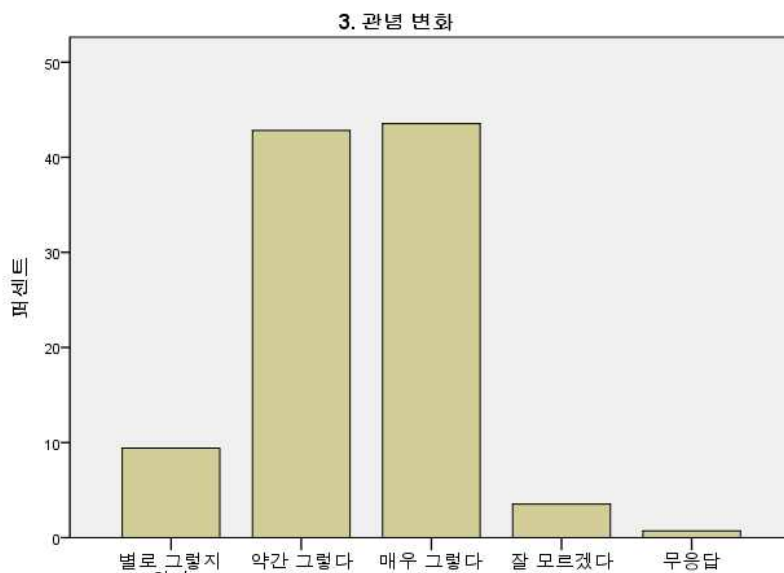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Since being involved I have become more confident about what I can do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성남	90%	7%	3%
영국	80%	8%	12%

○ ‘지적 향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향상 여부를 측정하려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성남과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들 모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성남의 경우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90% 가까운 응답자가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답함으로써 영국보다 10% 이상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기록함.

□ 질문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3. 관념 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3	0.7	0.7	0.7
	별로 그렇지 않다	40	9.4	9.4	10.1
	약간 그렇다	182	42.8	42.8	52.9
	매우 그렇다	185	43.5	43.5	96.5
	잘 모르겠다	15	3.5	3.5	100
	합계	425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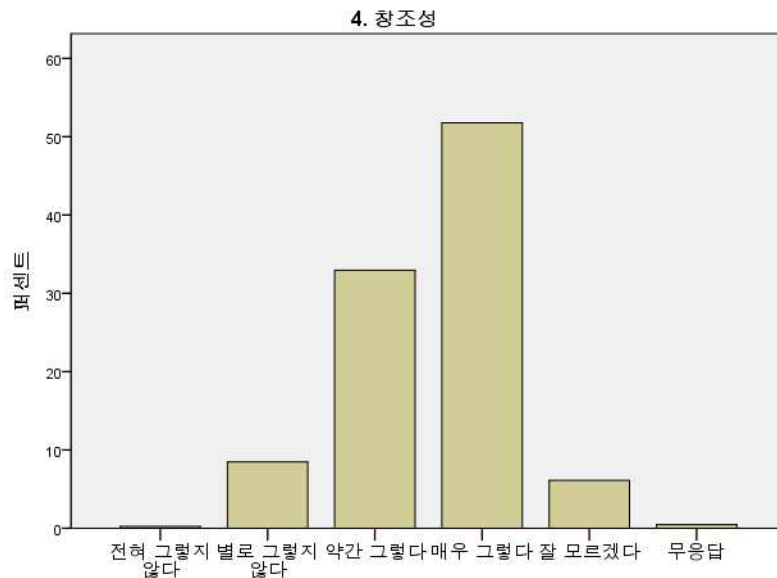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Has the project changed your ideas about anything?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무응답
성남	86%	9%	4%	1%
영국	36%	34%	30%	.

- ‘고정관념 변화’라는 효과를 확인하려는 세 번째 질문에서 성남 응답자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답한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서 뚜렷한 영향정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 질문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4. 창조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2	0.5	0.5	0.5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0.2	0.7
	별로 그렇지 않다	36	8.5	8.5	9.2
	약간 그렇다	140	32.9	32.9	42.1
	매우 그렇다	220	51.8	51.8	93.9
	잘 모르겠다	26	6.1	6.1	100
	합계	425	100	100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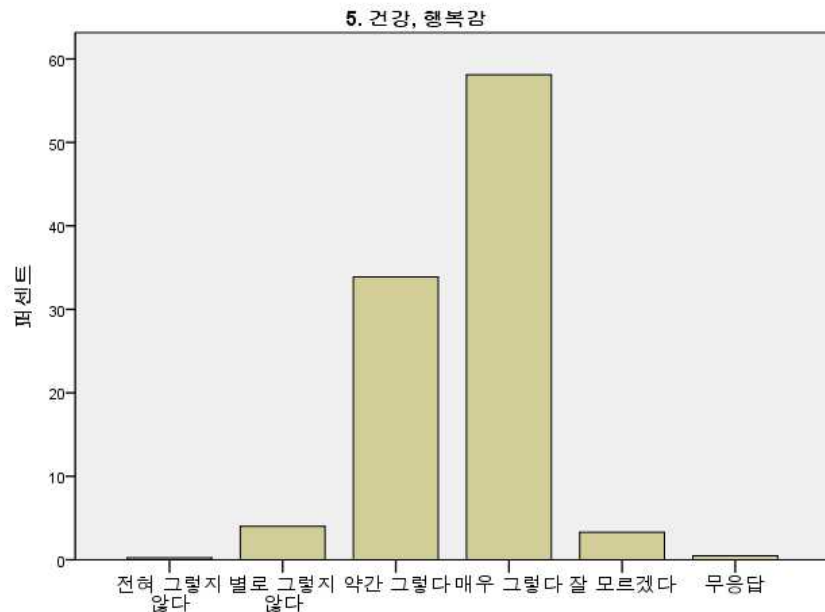
Was doing something creative important to you?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성남	85%	9%	6%
영국	56%	18%	26%

○ 생활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창조성’을 자극할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네 번째 질문에서 영국은 5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성남은 85%(응답자 425명 중 360명)가 해당 활동 과정에서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답변함.

□ 질문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5. 건강, 행복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2	0.5	0.5	5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0.2	7
	별로 그렇지 않다	17	4	4	4.7
	약간 그렇다	144	33.9	33.9	38.6
	매우 그렇다	247	58.1	58.1	96.7
	잘 모르겠다	14	3.3	3.3	100
	합계	425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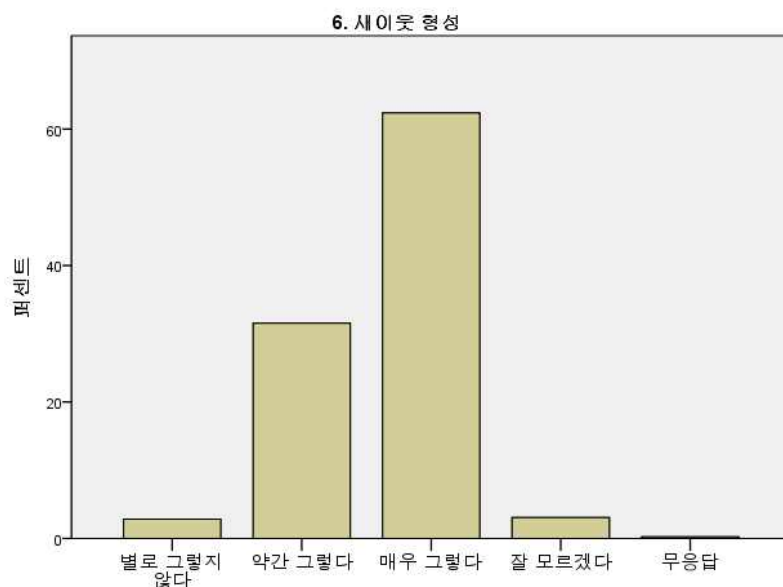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Since being involved I have, felt better or healthier ; I have been happier.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성남	93%	4%	3%
영국	48% ; 77%	29% ; 7%	23% ; 16%

○ ‘건강 및 행복감 증진’, 즉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남 응답자는 무려 9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한편 영국 응답자는 더 행복해졌느냐는 질문에는 7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더 건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 48%만 긍정적으로 답변함.

□ 질문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6. 새 이웃 형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1	0.2	0.2	0.2
	별로 그렇지 않다	12	2.8	2.8	3.1
	약간 그렇다	134	31.5	31.5	34.6
	매우 그렇다	265	62.4	62.4	96.9
	잘 모르겠다	13	3.1	3.1	100
	합계	425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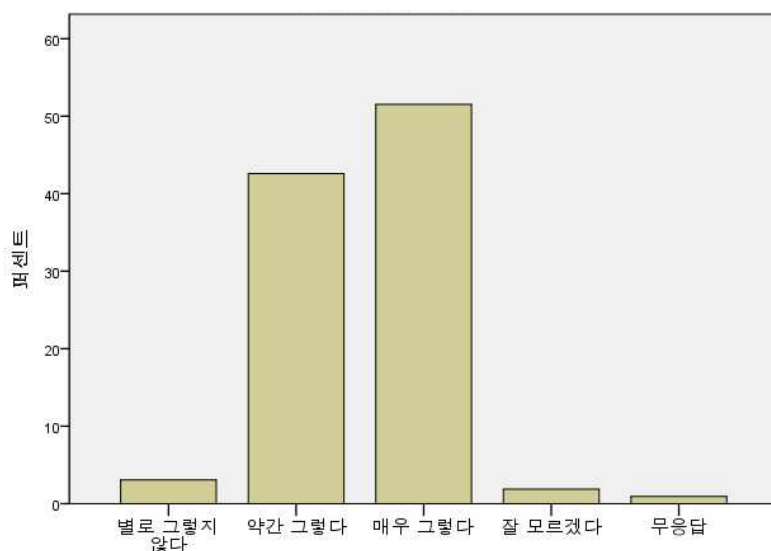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Since being involved I have made new friends.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성남	94%	3%	3%
영국	92%	4%	4%

○ ‘개인적 발전’에 관한 질문(1~5)보다 ‘사회통합 및 지역정체성 제고’에 관한 질문(6~10)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더 높은 것이 이번 성남 설문조사의 주목할 결과 중 하나인데, 그 첫 질문인 ‘새 이웃 형성’에 관한 질문에는 성남과 영국모두 90%를 훌쩍 뛰어넘는 긍정적 응답률을 기록함.

□ 질문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7. 타인 고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4	0.9	0.9	0.9
	별로 그렇지 않다	13	3.1	3.1	4.0
	약간 그렇다	181	42.6	42.6	46.6
	매우 그렇다	219	51.5	51.5	98.1
	잘 모르겠다	8	1.9	1.9	100
	합계	425	100	100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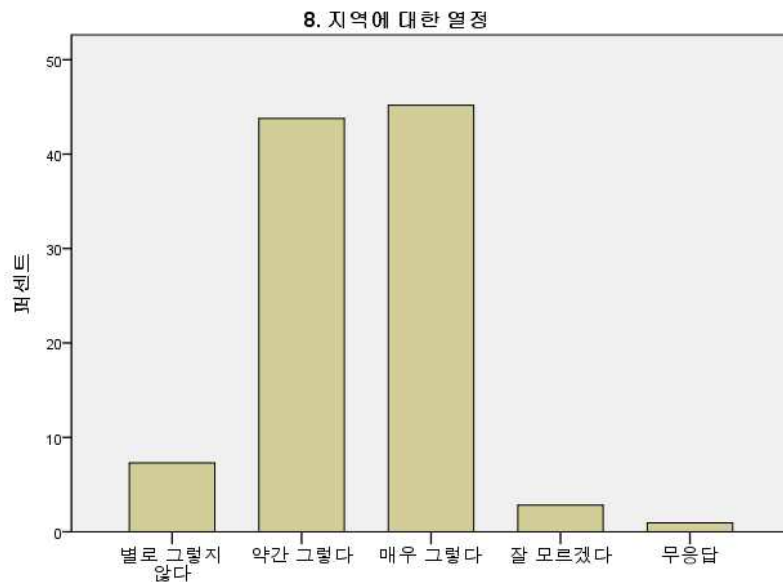
Since being involved I have learnt about other people's cultures.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무응답
성남	94%	3%	2%	1%
영국	56%	26%	18%	.

- 생활예술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영국 응답자들은 5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성남 응답자들은 94%가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생활예술 활동이 관용 및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영국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이 더 클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 질문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8. 지역에 대한 열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4	0.9	0.9	0.9
	별로 그렇지 않다	31	7.3	7.3	8.2
	약간 그렇다	186	43.8	43.8	52.0
	매우 그렇다	192	45.2	45.2	97.2
	잘 모르겠다	12	2.8	2.8	100
	합계	425	100	100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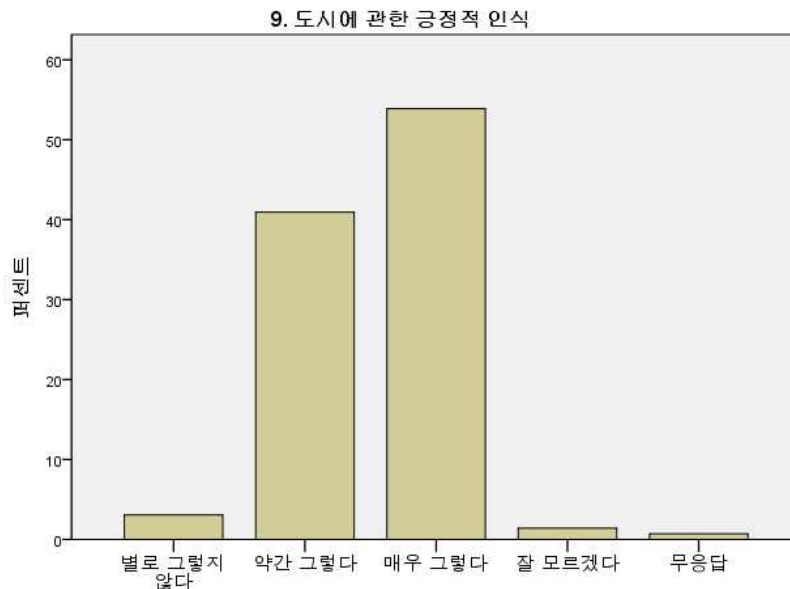
Since being involved I have become keen to help in local projects.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무응답
성남	89%	7%	3%	1%
영국	53%	21%	26%	.

- 생활예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사는 지역의 프로젝트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남에서는 약 8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데 비해, 영국에서는 절반 가량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함.

□ 질문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9. 도시에 관한 긍정적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3	0.7	0.7	0.7
	별로 그렇지 않다	13	3.1	3.1	3.8
	약간 그렇다	174	40.9	40.9	44.7
	매우 그렇다	229	53.9	53.9	98.6
	잘 모르겠다	6	1.4	1.4	100
	합계	425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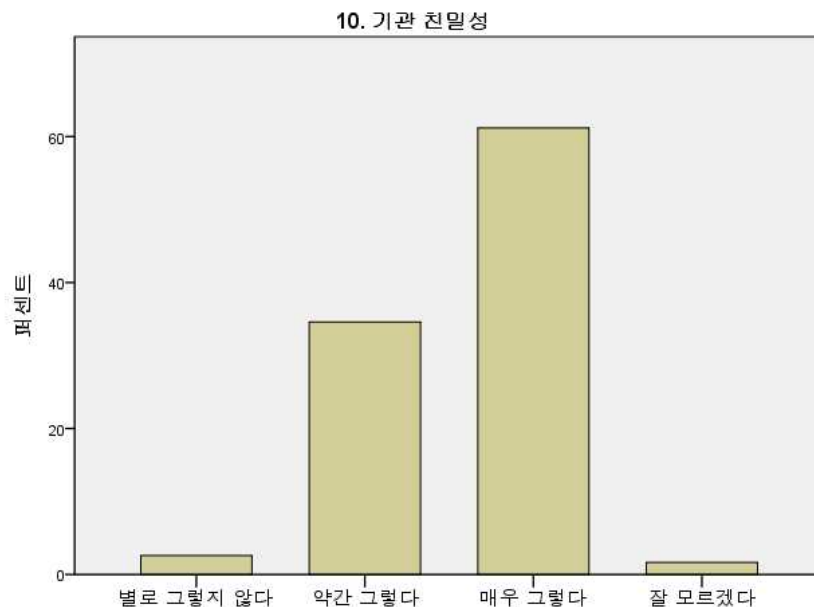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Do you feel differently about the place where you live?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무응답
성남	95%	3%	1%	1%
영국	27%	61%	12%	.

○ 성남시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기록한 질문이 바로 질문 9와 질문 10이었는바, 먼저 지역 이미지 변화에 관한 아홉 번째 질문에서 성남 응답자의 무려 95%가 생활예술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함. 영국의 경우 응답자의 27%만이 해당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다르게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 질문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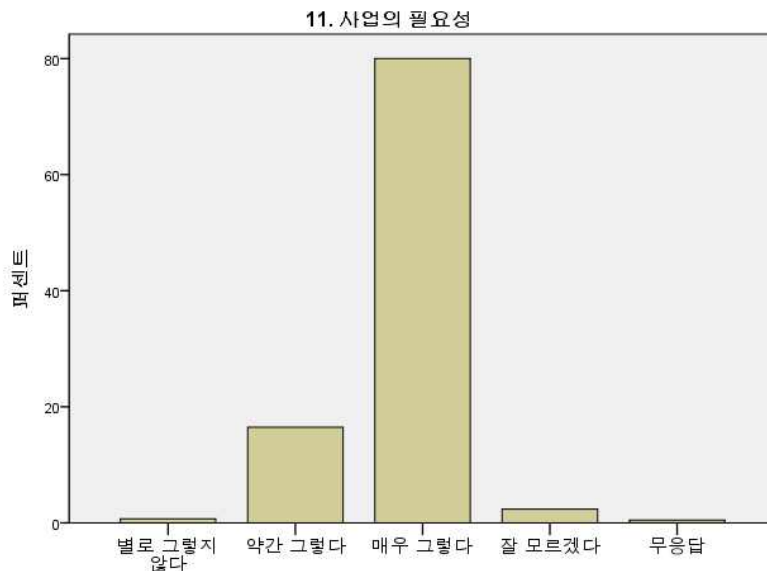
10. 기관 친밀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별로 그렇지 않다	11	2.6	2.6	2.6
	약간 그렇다	147	34.6	34.6	37.2
	매우 그렇다	260	61.2	61.2	98.4
	잘 모르겠다	7	1.6	1.6	100
	합계	425	100	100	



○ 생활예술 사업 참여의 영향도를 측정하고자 한 열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적 답변이 나타난 질문이 바로 열 번째 질문이었는바, 무려 96%의 응답자들이 생활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을 주도한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함.

□ 질문 11)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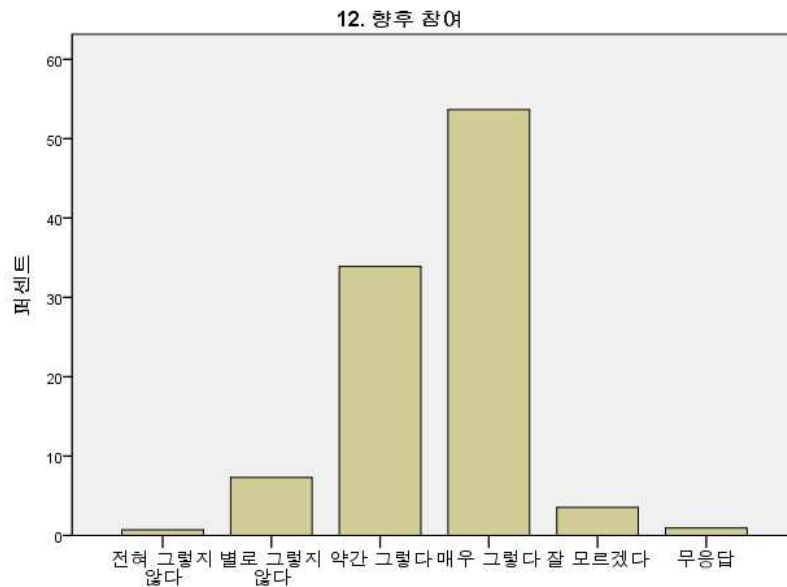
11. 사업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2	0.5	0.5	0.5
	별로 그렇지 않다	3	0.7	0.7	1.2
	약간 그렇다	70	16.5	16.5	17.6
	매우 그렇다	340	80.0	80	97.6
	잘 모르겠다	10	2.4	2.4	100
	합계	425	100	100	



○ 열한 번째 질문은 생활예술 활동의 ‘영향도’보다는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생활예술사업이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는바, 9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 중에서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무려 80%(340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 점임. 즉,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해당 사업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질문 12) 향후에는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12. 향후 참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응답	4	0.9	0.9	0.9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0.7	1.6
	별로 그렇지 않다	31	7.3	7.3	8.9
	약간 그렇다	144	33.9	33.9	42.8
	매우 그렇다	228	53.6	53.6	96.5
	잘 모르겠다	15	3.5	3.5	100
	합계	425	100	100	



해당 영국 설문지 문항:

Would you like to be involved in more work like this?(85% 4% 11%), If yes, would you like to help organise it?

	그렇다(Yes)	그렇지 않다(No)	잘 모르겠다(I don't know)	무응답
성남	88%	8%	4%	1%
영국	49%	21%	30%	.

- 향후 참여 의사를 보인 응답자들 중 영국에서는 단지 49%만이 사업 조직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참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성남에서는 88%의 응답자가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참여할 의사가 나타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발 행 인 : 신 선 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 하 동 근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 쇄 처 : 진흥문화(주)

발 행 일 : 2013. 10. 25

© 성남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 지은이: 성남
문화재단. -- 성남 : 성남문화재단, 2013
p. ; cm

ISBN 978-89-94964-11-9 93600 : 비매품

문화 예술 정책[文化藝術政策]
성남[城南]

600.15-KDC5
353.7-DDC21

CIP2013020164